

석사학위논문

코로나19 이후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 비교연구

2024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박 언 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코로나19 이후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f Worship Dance Perception
After the COVID-19 Period

2023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박 언 주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영애

코로나19 이후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 비교연구

Comparative Study of Worship Dance Perception
After the COVID-19 Period

위 논문을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박 언 주

박언주의 무용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3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김 남 용 (인)

심 사 위 원 안 신 희 (인)

심 사 위 원 박 영 애 (인)

국 문 초 록

코로나19 이후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 비교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무 용 학 과
기 독 교 무 용 전 공
박 언 주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다양한 양상의 4가지 유형의 교회를 선정하여 예배 무용 인식도 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동안 실행 시기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는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며, 이런 시대적 변화를 거치면서 예배 무용이 더욱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를 위해 각 교회 예배 무용 지도자를 통한 교회 예배 실행 현황을 알아보았고,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문을 통한 양적연구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이론적 배경 및 예배 무용 인식의 흐름을 살피기 위해 문헌자료 및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였다.

서울 및 경기, 인천에 거주한 코로나19 이전에 예배 무용팀이 있었던 교회 중 예배 무용을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 그리고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

단한 교회를 선정하여 예배 무용의 인식도와 필요도, 관심도와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와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실행 시기에 따른 인식도의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가설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10대 이상의 성도를 대상으로 7일 동안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 472명의 응답한 자료를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 및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포함,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항목에서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중단한 교회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현재 예배 무용을 실행 중인 교회는 예배 무용 인식에 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가 해제 후 1년여 동안 예배 무용을 드리고 경험하며 예배 무용에 관하여 긍정적인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배 무용팀의 존재 여부 및 예배 무용 경험에 따라 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예배 무용 인식의 차이가 필요도와 관심, 그리고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인식도를 높이는 방법은 먼저 예배 무용팀이 예배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위하여 영성과 성실한 연습을 통해 만족뿐 아니라 감동까지 줄 수 있는 예배 무용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식과 관심이 높아져 교회에서 예배를 돕는 역할로 세워지고 예배 무용 관람을 통해 필요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인식을 비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인식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또한 교회별로 코로나19 기간과 해제 후 꾸준히 교회 안에서 예배 무용을 실행했기 때문에 인식이 나빠지지 않고 미비하게나마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예배 무용을 실행하는 교회가 아닌 중단한 교회와 인식을 비교하면 중단한 교회의 인식이 현저하게 낮았다. 코로나19 이후 중단한 교회들이 늘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배 무용의 인식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예배 무용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예배 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 모두 예배 무용의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 개선점은 성경과 기독교 내용을 예술성 있게 표현하여 전달하는 것이 59.3%로 가장 높았고 테크닉, 안무에 관한 연구로 전문성 확립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문적인 표현을 통해 전할 수만 있다면 성가대처럼 예배 안에 고정적으로 세워지는 역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신 할 수 있는 감동까지 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위와 같은 결과를 살펴봤을 때 현재 예배 무용을 실행하고 있는 3개 교회는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도 및 필요도, 관심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와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단한 교회의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도는 모든 항목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예배 무용의 실행 여부가 인식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예배 무용을 하면 할수록 인식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연구로 증명했다. 앞으로 예배 무용을 더 활성화하고 예배 무용의 인식을 높이려면 더 많이 예배 무용이 이뤄지고 보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배 무용의 인식도를 높이는 방법은 첫째, 예배 무용의 보급이며 둘째, 전문적인 예술성 있는 안무와 셋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후 예배 무용 보급으로 인한 인식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예배 무용 보급 및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론적 실제적인 연구와, 신학적인 이론과 전문적인 실기를 겸비한 구체적인 전문 예배무용가를 양성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주요어】 예배, 예배 무용, 예배 무용의 유형, 예배 무용의 인식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6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및 한계	7
제 4 절 예배 무용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7
제 2 장 예배 무용의 이해	8
제 1 절 예배의 개념	8
제 2 절 예배 무용의 개념	11
제 3 절 한국교회 예배 무용의 흐름	15
제 4 절 예배 무용의 유형 및 현황	18
제 3 장 코로나19 이전 예배 무용 인식의 흐름	21
제 1 절 코로나19 이전 예배 무용 인식의 흐름 분석	21
제 2 절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상황	31
제 4 장 연구 방법	35
제 1 절 연구 문제 및 연구가설 제시	35
1) 연구 문제제시	35
2) 연구의 가설	36
제 2 절 연구 대상	36

제 3 절 측정 도구	38
제 4 절 자료수집 절차	39
제 5 절 자료 처리 방법	40
제 5 장 연구 분석의 결과	41
제 1 절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41
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41
2) 예배 무용 인식도, 필요도, 관심도, 및 만족도 기술통계	42
제 2 절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	43
제 3 절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교회의 인식도 분석	44
1) 코로나19 기간 예배 무용을 꾸준히 유지한 교회	44
2) 코로나19 기간 중 예배 무용을 부활한 교회	50
3) 코로나19 해제 후 예배 무용을 부활한 교회	56
4)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예배 무용을 중단한 교회	62
제 4 절 대표적인 4개 교회의 인식도 차이	67
1) 4개 교회의 예배 무용 인식에 대한 차이	68
2) 4개 교회의 예배 무용 필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	70
3) 4개 교회의 예배 무용 관심도에 대한 인식 차이	72
4) 4개 교회의 예배 무용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75
5)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가 예배 무용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	77
6)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가 예배 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8
7) 예배 무용 필요도가 예배 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9
제 5 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예배 무용 인식의 차이	80
1) 예배 무용에 대한 가치 인식 차이 분석	80
2) 예배 무용 필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81
3) 예배 무용 관심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82
4) 예배 무용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82
5) 예배 무용 활성화 시 장애 요소 인식 및 개선점 차이 분석	83

제 6 장 논의 및 가설검증	86
제 1 절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인식도 차이	86
제 2 절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필요도 인식 차이	87
제 3 절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관심도 인식 차이	88
제 4 절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만족도 인식 차이	89
제 5 절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가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	90
제 6 절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91
제 7 절 예배 무용 필요도가 예배 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92
제 7 장 결론 및 제언	93
참고문헌	96
부 록	100
ABSTRACT	106

표 목 차

[표 3-1]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인식 연구논문	22
[표 3-2]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인식 연구논문(연구 대상)	23
[표 3-3] 연도별 예배 무용에 대한 가치 인식 흐름	24
[표 3-4] 연도별 예배 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흐름	26
[표 3-5] 연도별 예배 무용에 관한 관심과 만족도 조사	27
[표 3-6] 연도별 예배 무용 활성화 시 장애 요소	29
[표 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7
[표 4-2] 설문지의 구성 지표	38
[표 5-1] 변인별 신뢰도 계수	41
[표 5-2] 예배 무용 인식도, 필요도, 관심도, 및 만족도의 기술통계	42
[표 5-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3
[표 5-4] 일반적 특성	45
[표 5-5]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의 예배 무용 인식	46
[표 5-6] 일반적 특성	51
[표 5-7]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의 예배 무용 인식	52
[표 5-8] 일반적 특성	57
[표 5-9] 코로나19 해제 후 예배 무용 부활한 교회의 예배 무용 인식	58
[표 5-10] 일반적 특성	63
[표 5-11]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예배 무용 중단한 교회 예배 무용 인식	63
[표 5-12] 4개 교회의 예배 무용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	68
[표 5-13]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인식도 차이	70
[표 5-14] 4개 교회의 예배 무용 필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	70
[표 5-15]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필요도 차이	72
[표 5-16] 4개 교회의 예배 무용 관심도에 대한 인식 차이	72
[표 5-17]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관심도 차이	74
[표 5-18] 4개 교회의 예배 무용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75

[표 5-19]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만족도 차이	76
[표 5-20]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가 예배 무용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 ..	77
[표 5-21]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가 예배 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78
[표 5-22] 예배 무용 필요도가 예배 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79
[표 5-23] 예배 무용에 대한 가치 인식 차이 분석	80
[표 5-24] 예배 무용 필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81
[표 5-25] 예배 무용 관심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82
[표 5-26] 예배 무용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82
[표 5-27] 예배 무용 활성화 시 장애 요소 및 개선점 인식 차이 분석	83

그림 목 차

[그림 3-1]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인식 연구논문 현황	23
[그림 3-2] 연도별 예배 무용에 대한 가치 인식	25
[그림 3-3] 연도별 예배 무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26
[그림 3-4] 연도별 예배 무용에 관한 관심도 및 만족도	28
[그림 3-5] 연도별 예배 무용 활성화 시 장애 요소	29
[그림 3-6] 거리 두기 전면 해제 후 코로나19 이전 대비 예배 참석 정도	32
[그림 4-1] 자료수집 절차	39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태아가 태중에 있을 때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심장 소리와 태아의 움직임이다. 태동이 없으면 부모는 태아가 잘못되었을까 봐 걱정하게 되는데, 이렇듯 움직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생존을 위해 당연하고 필연적인 행위이다. 먹고, 걷고, 자는 등 모든 필연적인 움직임이 감정과 사상을 몸으로 표현하는 예술로 승화되어 몸의 언어가 되고 무용이 되었다. 이정인(2009)은 무용은 인류 역사와 함께 종교적인 의식에서 시작되었고 신과 인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신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빌었으며 신을 찬양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주장했다.¹⁾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경으로 쓰인 성서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용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내용이 나온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안전하게 이끄시고, 바로의 군대를 물로 덮어버리신 사건 속에서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였다.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춤은 더욱 유명하다. 여호와와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뛰놀며 춤을 추었다. 또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전하여 들어올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외치며 소고와 경쇠로 춤추며 환영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 시가서에는 특히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 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라.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전 6장 19~20절).

1) 이정인.(2009). “기독교 무용의 인식변화 분석.”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p.1.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장 1절)

이처럼 종교적 의미로 추어진 춤에 대한 예시는 성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우리의 몸이 성령, 곧 하나님의 성품에 메여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의 몸으로, 즉 무용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다. 전유오는 기독교 신문사 인터뷰에서 말하길 “춤은 찬양이요, 기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한다.”²⁾고 정의하며, 춤이야말로 몸을 드리는 산 제사라고 말한다. 즉, 성서 안에 나타난 무용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전인격적인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었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기술한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통해 예배드리는 무용의 형태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기독교 무용이다. 한국에서 행해지는 기독교 무용의 유형은 크게 교회 무용과 기독교 예술무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춤을 통해 표현하는 주제나 내용은 다르지 않지만, 기능에 따라 구분된다. 교회 무용은 일반적으로 교회의 예배나 선교, 집회 등, 교회와 관련된 여러 행사에 사용되며 찬송가나 복음성가, C.C.M.(Contemporary Christian Music)에 맞추어 추어지는 춤이다. 반면에 기독교 예술무용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무용 전공자들이 기독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안무된 작품을 관객을 위해 공연하는 것으로, 예술성을 추구하며 공연 예술 형식이 갖추어진 무용이다.³⁾ 기독교 무용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을 도와주고 몸의 움직임에 통해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매개체로서 존재해 왔다.⁴⁾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의 하나로 기독교 무용은 움직임으로 말씀을 증명하며 전할 수 있다. 유학자는 기독교 예술이나 일반 예술의 창조 행위는 하나님의

2) 안홍철, “아름다운세상/ 하나님 찬양하는 '춤꾼들' - 물맷돌무용단”, 한국기독교공보, 1999년 07월 24일자.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812863361>.

3) 박영애.(2010). 춤과 교회문화 『춤과 문화』. 대한무용학회(편). 서울: 도서출판 대한미디어, pp.99-101.

4) 박영애.(2010). “성경에 나타난 춤의 의미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 18:23-39.

의도가 인간에게 형상을 낳게 하는 기능의 부여로 기독교 예술은 창조적 능력을 부여하신 것이라 말하며, 이 능력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⁵⁾ 기독교 무용의 주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무용만큼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적극적인 예배는 없다고 사료된다. 성육신한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며 선교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도 춤추며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몸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기독교 무용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불리는 용어는 교회 예배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 무용이다. 워십 댄스(Worship Dance)라고도 불리는데 가장 존귀한 분에게 우리의 몸을 드려 경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이다. 주일예배나 수요일예배, 금요일예배, 새벽예배에서 드러지고 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모여 한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했던 공동체적 예배형식은 전 세계적으로 공황에 빠지게 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안에서 예배 무용뿐만 아니라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빠트렸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순, 중화인민공화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처음 발병한 원인불명 폐렴으로,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는 임시로 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영어: 2019-nCoV acute respiratory disease)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2020년 12월 12일 정식명칭을 Coronavirus disease-20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의 약어인 COVID-19로 확정, 2020년 3월 11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범유행(팬데믹)을 선언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라는 한국어 명칭을 지정하여 사용하였으며, 2020년 3월부터 2년 1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5월 5일 22시(제네바 현지 시각 15시)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PHEIC) 선포를 해제하였다.⁶⁾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간 유지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PHEIC)은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도 많은 변

5) 유학자.(1997). “무용이 한국기독교 선교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 7:129.

6) 중앙방역대책본부,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 발표” 질병관리청, 2023년 05월 06일자.

https://ncov.kdca.go.kr/tcmBoardView.do?brdId=3&brdGubun=31&dataGubun=&ncvContSeq=7234&contSeq=7234&board_id=312&gubun=ALL

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한국교회에 문화 사역이 활성화되면서 각 교회에 예배 무용을 하는 팀이 많이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리 두기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인해 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감염예방을 위해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없었던 무용팀은 활동을 자동 중단하게 되었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이 해제된 이후에도 교회는 대면 예배와 영상예배를 드리고, 이에 따라 대면 예배에 나오는 출석 교인이 20%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⁷⁾ 교인들의 출석과 침체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교회는 예배, 집회, 야유회, 연합 성가대, 체육대회 등 갖은 행사와 소그룹을 부활시켰음에도 예배 무용팀은 부활하지 못하고 사라진 팀이 많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이원론적인 사고와 전통 보수주의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왜곡시키는 경향으로 흘러 예배 중에 무용은 불필요하다는 의식과 기독교 발전에 장애 요소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물며 코로나19 이후 예배 무용을 드리지 않았으니 더욱 생각은 굳어졌으리라 생각한다.

인식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찾아보면 말씀 위주의 예배 형식 외에 춤을 통한 예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지연(2005)은 “기독교 예배 무용의 가치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목회자들의 무용에 관한 전문적인 필요성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결론을 이야기하였고, 최수진(2016)은 “현대 교회 내 기독교 무용의 인식분석에 의한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등이 예배순서에 포함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기독교 무용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춤으로 드리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목회자를 비롯한 기독교인들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예배 무용 인식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최지연(2018)의 “교회 사역에서의 기독교 무용 활성화방안 연구”를 위한 인식조사를 마지막으로 예배 무용에 관한 인식조사가 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배 무용을 드릴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연구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2년 1개월의 공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은 예배 무용의

7) 배하진. “코로나 전후 비교, 출석 교인 수 20% 감소” 뉴스제이. 2022년 05월 24일자.
<http://www.newsjesu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33>

인식이 낮아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코로나19 기간 교회에서 예배 무용으로 자리를 지켜온 교회가 있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여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라진 예배 무용팀이 많은 상황에서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되, 코로나19 이후 예배 무용 실행 시기가 다른 다양한 양상의 4가지 유형의 교회를 선정하여, 코로나19 동안 실행 시기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는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며, 이런 시대적 변화를 거치면서 예배 무용이 더욱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예배 무용 지도자를 통한 교회 예배 실행 현황을 알아보고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그밖에 이론적 배경 및 예배 무용 인식의 흐름을 살피기 위해 문헌자료 및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였다.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연구 및 인터넷 자료를 통해 무용, 기독교 무용, 예배, 예배 무용, 코로나19, 코로나19 이후 교회 현황에 관해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았다.

둘째, 코로나19 이전 예배 무용 인식에 관해 분석하고자 선행연구를 살펴 보았다.

셋째, 코로나19 동안 다른 양상으로 예배 무용을 진행했던 4개 교회를 선정하여, 예배 무용 인식과 관련해서 설문을 통해 답변받았다.

넷째, 수집한 설문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 3 절 연구의 제한점 및 한계

본 연구를 수행하며 제한점과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및 수도권 내에 있는 교회 중 코로나19 이전에 예배 무용을 드린 4개 교회를 선정하였다.

둘째, 서로 다른 양상의 교회를 선정하기 위해 코로나19 기간 예배 무용을 꾸준히 유지한 교회,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네 교회로 한정하였다.

셋째, 구글 폼(Google Forms)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설문을 받았으나 60대 이상의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분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설문지를 통해 답변받았다.

제 4 절 예배 무용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

예배 무용 인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인식도를 연구한 최길순(2005), 김은희(2006), 박미정(2006), 이지연(2005), 이정인(2010), 이한나(2010)의 연구 및 기독교 무용 활성화를 위한 성도들의 인식도 조사를 한 변현정(1995), 장소희(2002), 함성애(2005), 최수진(2016), 최지연(2018)의 논문을 비롯해 기독교 무용 현황을 통한 활성화방안을 연구한 윤초롱(2002), 조혜경(2008)의 연구가 있었다. 워십 댄스 참여자의 인식과 기독교 신앙 활동 몰입 경험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김다영(2008)의 연구와 이주노동자의 문화선교를 위한 기독교 무용의 인식 및 활성화방안을 위한 이승은(2011)의 연구를 살펴보면, 성도와 목회자, 그리고 이주 노동자 및 예배 무용팀을 대상으로 인식연구를 하였지만, 본 연구처럼 코로나19 이후 예배 무용 실행 시기에 따른 4개 교회 예배 무용 인식의 차이를 연구한 연구자는 없으므로 이 연구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 2 장 예배 무용의 이해

제 1 절 예배의 개념

기독교 하면 예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 하는 이들은 신앙의 표징을 예배로 드러낸다.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시작한다. 황성철(2011)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는 부르심의 응답이며, 삶으로 살아 내는 실천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말한다.⁸⁾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이면서 반면에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대상이 누구이며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설명서이기도 하다. 어원을 통해 예배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약성경에서 예배의 중요한 용어는 만드다, 숭배하다, 복종한다를 뜻하는 ‘아바드(abhadh)’이다. 본래 이 말은 노예나 고용된 종들을 의미하는데, 이 말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면서 제물을 드리는 봉사와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사9:21, 렘44:3).⁹⁾ 두 번째 용어는 굴복하는 것, 또는 자신을 엎드리는 것을 뜻하는 ‘샤하아(shachah)’가 있다. 히스기야 왕이 몸을 굽혀 예배하고(대하29:30) 욥이 엎드려 예배(욥1:20)한 것 같이 말씀에 ‘엎드린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숭배, 순종, 봉사의 개념과 함께, 마음과 몸의 존경을 표시하는 태도이다. 특별히 지정한 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믿고 머리 숙여 경배했다(출43:1).¹⁰⁾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고 봉사하는 행위로, 육체적인 겸손의 자세와 물질적인 희생으로서의 봉사 행위로 예배자의 진실한 마음과 생활의 표현이다.¹¹⁾ 사람이 누군가에게

⁸⁾ 황성철.(2011).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p.13.

⁹⁾ 김소영.(1982). 『예배와 생활』.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p.30.

¹⁰⁾ Franklin M Zeigler.(1979). 『예배학 원론』. (정진황, 역). 서울: 요단출판사, p.18.

앞드리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며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

예배라는 말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신약 용어는 프로스퀴네오(Proskunein)로 헬라인들에게 많이 사용되던 단어이다. '누구의 손에 입 맞추는 것', 혹은 '존경의 표시로 다른 이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흔히 지상의 통치자들에게 존경을 표하여 허리를 굽히는 행위로(마18:26) 사용되었으며, 이는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뜻한다.¹²⁾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라고 말씀하실 때 이 낱말을 사용하셨다. 예배는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담아 존경, 경외, 찬양, 영광을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는 인간이 보여주는 심령과 신체의 표현으로 이루어지는 경배를 가리킨다.¹³⁾

또 다른 용어 레이투르기아(λε ι τ ο υ ρ γ ι α)는 ‘노동’과 ‘백성’의 합성어이다. 일반적으로 예전의 의식과 관계를 맺는 단어로써 본래의 뜻은 ‘백성을 위하여 일한다’라는 뜻으로 소국이었던 아테네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이는 헬라 교회에서 성만찬 의식을 위해 사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으로써 실천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¹⁴⁾ 그 후 이 단어는 예전 의식을 뜻하는 영어, 리터지(liturgy)로 바뀌어 제사장의 직무(눅1:23), 그리스도의 직분(히8:6), 교회의 예배(행13:2) 등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되었다.¹⁵⁾

라트레이아(λ α τ ρ ε ι α)라는 용어는 구약성경의 아바드를 70인 역에서 번역한 것으로 ‘섬긴다’라는 의미로, 종으로서 자신의 상전을 섬겨야 할 신분을 확인시키는 일에 사용되었다. 지위가 높은 자에 대한 봉사(요16:2; 롬9:4, 12:1; 히9:1)를 뜻하며, 종교적 의미를 지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¹⁶⁾ 예수께서 ‘다만 그분만을 섬기

11) 황성철, 전계서, pp.18-19.

12) 상계서, p.19.

13) Macarthur, John.(1986). 『참된 예배』.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서원. p.11.

14) Franklin M Zeigler. 전계서, p.19.

15) 황성철, 전계서, p.20.

16) 황성철, 전계서, pp.20-21.

라'라고 유혹하는 사탄에게 최종적으로 선언할 때 사용된 말로써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종으로서 자신의 상전만을 섬겨야 할 신분을 확인시키는 말이다.¹⁷⁾ 이 외에도 존경의 행위를 나타내며 숭배의 종교적 표현을 의미하는 '세베스타이(σ ε β ο μ α ι)'와 신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의미하는 '트레스케이아(θ ρ η σ κ ε ι α)'와 같은 용어에서도 예배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¹⁸⁾

예배의 의미는 오늘날에도 이어진다. 예배라는 말을 한자어로 이해하면 '예를 다하여 절한다'라는 의미이다. 예배를 지칭하는 영어의 'worship'은 앵글로색슨어인 'weorthscipe', 즉 worth(가치가 있는)라는 형용사와 ship(신분)'에서 유래했다. '가치를 돌린다'라는 의미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최대한의 존경으로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다.¹⁹⁾ 이러한 표현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여호와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시96:8)”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시99:9)”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5:12)”.

기독교에서 예배(worship), 또는 경배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고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라고 말한다.²⁰⁾ 이한나(2010)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죄 사함을 얻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지며 영원한 생명을 얻은 복음의 사실을 진실하게 깨달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구원과 창조 섭리의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예배라고 정의한다.²¹⁾ 정인교(1997)는 “다른 종교의 예배와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드러지는 자발적

17) 장영대.(2008). “예배에 있어서 교회음악의 역할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p.5.

18) 김세광.(2001). 『현대 교회에서 예배 정의에 대한 신학적 고찰』. 서울: 장신논단, p.183.

19) 황성철, 전계서, p.16.

20)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8%88%EB%B0%B0>.

21) 이한나.(2010). “예배 무용에 대한 신학생들의 인식도.”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p.10.

행위이고 인간에 의한 일방적 봉사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배의 주도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어떤 행위로써가 아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고 인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행위로 시작하신다.”라고 말한다.²²⁾

어원을 살펴보면 어떤 특정한 직분이 있는 자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다. 예배는 종의 신분을 깨달은 겸손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몸을 드러 봉사, 순종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입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이,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제 2 절 예배 무용의 개념

예배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성경의 어원에서 찾아보았다. 종합해 보면 예배는 ‘앞드린다.’, ‘절하다.’, ‘입 맞춘다.’, ‘섬긴다.’, ‘굴복한다.’, ‘가치와 존귀를 돌린다.’, 등으로 설명된다. 이는 경배하기 위해 납작 엎드리는 외적 행위와 여기에 상응하는 믿음과 존경의 내적인 상태 두 가지를 다 내포하는데,²³⁾ 이는 신체적인 자세와 움직임이 포함된다. 사랑하는 아이를 그저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지켜만 보지 않는다. 안아주고 뽀뽀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한다. 이처럼 마음과 생각은 행동으로 연결된다.

구약성서에서 솔로몬 이후 예배에 대한 의식이나 제도의 언급은 점차 약화하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하는 질문을 하고, 예배의 목적에 관한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²⁴⁾ 선지자들은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동물의 희생 제물이 아니라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시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미6:8)”이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22) 정인교.(1997). 『예배학 원론』. 서울: 솔로몬 말씀사, pp.8-9.

23) 송유순.(1990). “기독교의 예배 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11.

24) 상계논문, pp.7-8.

기름보다 낫다(삼상15:22).”라고 예배의 본질을 강조한다.²⁵⁾ 예배의 본질을 생각할 때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춤을 통해서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교회 예배 안에서 추어지는 춤을 예배 무용(Worship Dance)이라고 정의한다. 그것은 ‘Worship’이라는 ‘경배, 예배’의 뜻을 가진 단어와 ‘Dance’라는 ‘춤’의 뜻을 가진 두 영어 단어가 합쳐져 불리고 있으며, 예배 무용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 몸의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간절한 기도이며 우리의 신앙고백이다.²⁶⁾

성서에서 우리의 몸을 이야기할 때도 이원론적으로 악하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인 ‘몸’을 통해 만난다고 말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라.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전 6장 19~20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롬 12장 1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므로 우리의 몸이 성령, 곧 하나님의 성품에 메여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의 몸으로, 즉 무용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다. 전유오는 기독교 신문사 인터뷰에서 말하길 “춤은 찬양이요, 기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한다.”²⁷⁾고 정의하며, 춤이야말로 몸을 드리는 산 제사라고 말한다. 즉, 성서 안에 나타난 무용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전인격적인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었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기술한다.

25) 상계논문, p.11.

26) 박은영.(2005). “예배 무용의 특성 연구(성서와 현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p.8.

27) 안홍철. “아름다운세상/ 하나님 찬양하는 '춤꾼들' - 물뿔돌무용단” 한국기독교공보. 1999년 07월 24일자.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812863361>.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성서에서도 예배 무용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박영애(2005)²⁸⁾의 『기독교 무용사』를 살펴보면 성서와 역사를 통해 예배 무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물과 관련된 의식무용, 수확 축제의 의식무용, 승리를 축하하는 의식무용, 결혼식 의식무용, 장례식 의식무용, 그리고 무아경의 의식무용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춤이 있었다. 교회에서 행해지던 춤은 대부분 합창 무용(chora dance)이나 원무(ring dance)였으며 대부분 찬송가나 시편에 맞추어 추어졌다. 발을 구르는 춤과 꺾춤 뛰며 추는 춤, 빙글빙글 도는 춤이 있었으며, 성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의미하는 윤무(rotation dance)도 추었다.²⁹⁾ 모든 춤은 박수와 발 구르기로 박자를 맞추면서 추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한 사람만이 아닌 집단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춤을 추며 예배드렸음을 의미한다.³⁰⁾

무용의 기원은 선사시대 수렵과 채집활동을 하면서 주술적 의식을 통해 신에게 기원을 드리는 것으로, 인간은 언어가 발달하기 전 움직임으로 의사를 표현하였다.³¹⁾ 수렵·전쟁·농경·수태를 기원하는 무용뿐 아니라 치유를 위해 주술적으로 행하는 무용도 생겨났다. 무용은 생명과 직결되어 종교적 의식에서 시작되었고 점차 예술적 가치를 추구하며, 인간의 신체 움직임에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여 미적 가치 판단을 나타내는 예술로 승화하였다.³²⁾

플라톤(Platon)은 “무용은 육체의 울동과 영혼의 매개체이다.”라고 정의하며, 무용이 신체의 움직임 그 자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영혼이 결합한 신체운동으로서 혼의 외침과 속삭임이며, 영의 신체적 표현, 즉 인간의 육체 운동을 통해서 영혼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³⁾

박금자(1988)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해 온 무용은 타 예술과 비교하여 볼 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이 신체 자체인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글로써 표현하는 것이 문학과, 소

28) 박영애.(2005). 『기독교 무용사』. 서울: 한성대학교출판부, pp.119-136.

29) 상계서, p.137.

30) 상계서.

31) 김영미.(2018). “한국교회 예배 무용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p.13.

32) 양서정, 서차영, 전미숙, 서영. (2009). 『무용의 이해』. 서울: 교학사, pp.16-19,

33) 이지연.(2006). “기독교 예배 무용의 가치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p.19.

리로서 표현하는 것이 음악이며, 색과 형체로서 표현하는 것이 미술인 것처럼 무용은 신체를 통해서 인간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예술이다”라고 주장한다.³⁴⁾

이러한 감정과 생각, 사상을 몸으로 표현한 예배 무용을 정의한 연구자들이 있다. 박영애(2010)는 춤을 매우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표현 수단으로서 인간사회에 깊이 뿌리 내렸으며,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필수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간과 신, 즉 하나님과의 교통을 도와주며 몸의 움직임을 통해 마음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매우 심오한 차원의 매체로서 존재해 왔다고 기술한다.³⁵⁾

이지연(2006)은 예배 무용은 성경에 기준을 두고 기독교의 사상과 종교적 체험을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최상의 상태로 인도하는 종합적 매체이자 중요한 의례 행위라고 정의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수단으로 더 표현적이고 적극적으로 종교적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몸의 언어로, 종교체험을 위한 가장 좋은 실제적 가치를 지닌 매개체라고 말한다.³⁶⁾ 이는 하나님께 속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때 무용이 도움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영국의 교회 무용 사역자 매들린 베리(Madeleine Berry)는 “예배에서의 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경배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항상 그분께 중심을 두어야 한다”라고 언급하였다.³⁷⁾ 일반무용이나 예배 무용은 모두 사람들 앞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효과를 준다. 하지만 일반 무용은 자신의 감정을 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예배 무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목적을 가진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생각 및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은혜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여, 신앙의 고백 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매개체로 예배 무용이 사용되어야 한다.

34) 박금자.(1988). 『무용론』. 서울: 도서출판 금광, p.10.

35) 박영애.(2010). “성경에 나타난 춤의 의미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무용기독교학회』, 18:25.

36) 이지연, 전개논문, pp.20-21.

37) Berry, P. Madeline.(1994). 『몸으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계인, 역).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 p.9.

제 3 절 한국교회 예배 무용의 흐름

한국기독교의 역사는 불과 약 130년밖에 되지 않았고, 기독교 무용이라는 단어의 사용과 실제적인 기독교 안에서 또는 세상으로의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된 지도 불과 20~30년밖에 되지 않았다.³⁸⁾

한국기독교의 역사는 1884년(한국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 설립)에 시작하였다. 그리고 1885년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오면서 기독교는 선교 활동에 활기를 띠게 되었다. 초기 기독교의 선교는 의료, 문서, 성경 번역, 교육 선교 등의 복음 선교였으며, 교회 안에서의 율동이나 제스처, 춤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은 그 당시 샤머니즘, 유교, 불교가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시대적, 경제적, 상황이나 예술 문화예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³⁹⁾ 그래서 처음 교회 안에서의 움직임은 손 유희나 제스처, 율동의 정도로만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한국기독교의 윤리관이 상당히 보수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⁴⁰⁾ 또한 1960년대 이전 교회학교를 통해 교육적 수단으로 시작된 유희와 제스처는 극히 미약하여, 율동은 발표회나 절기 행사할 때만 특정인에 의해 특별한 순서로만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이 교육 노래에 맞는 율동을 창작하여 보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전통적인 인습과 의식의 뿌리까지 지배했던 유교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각 교계지도자의 이해 부족으로 처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⁴¹⁾ 이처럼 춤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화권 내에서 무관심과 배척을 받아왔으며, 1960년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됐다.⁴²⁾ 이후 1960년대 후반에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와, 착한 어린이 교육원을 통하여 음악과 놀이와 신앙교육의 율동이 창작되고 보급됐는데,⁴³⁾ 이곳에서 율동을 보급한 보급자는 나하나 권사이다. 그리고 1970년대가 되면서 교

38) 박연훈.(2002). 『몸 찬양 비디오 통신대학』. 서울: 프레이즈, p.247.

39) 이신영.(2001). “한국선교 무용의 실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pp.52-53.

40) 상계논문, pp.53-54.

41) 윤초룡.(2002). “한국기독교 무용의 현황과 발전 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pp.17-18.

42) 최신정.(2006). 『하나님을 향해 춤을』. 서울: 요단 출판사, p.64.

43) 윤초룡, 전계논문, p.18.

회 안에서는 찬양과 율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어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통해 율동 보급이 이루어졌다.⁴⁴⁾

또한 1973년 이화여대 부활절 예배 때 육완순의 작품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공연되었고, 1980년에는 ‘아버지여, 아버지여’, ‘뜻’, ‘십자가 밑에서’ 등의 선교 발레 작품이 조승미에 의해서 창작되었다. 이렇듯 기독교 무용이 율동의 범주에서 벗어나 교회 안에서 예술적인 전문 문화 사역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고, 1980년대 이후부터 많은 기독교 무용가의 사명과 열정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⁴⁵⁾ 그러나 여러 노력 가운데에도 1980년대 이전에 기독교 무용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찬양을 부르며 흥을 돋우기 위하여, 혹은 발표회 때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무용을 선보이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향한 단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⁴⁶⁾

198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찬양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찬양집회가 활성화되면서 기독교 무용 또한 발전하기 시작했다.⁴⁷⁾ 198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한국교회의 찬양은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ANM: All Nations Worship&Praise Ministries)”팀의 등장으로 전환기를 맞게 되면서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된다. 참된 예배의 회복을 목적으로 기존의 단순하게 안무된 율동적인 예배 무용은 다양한 유형의 예배 무용으로 연구되어 점차 발전되기 시작하였다.⁴⁸⁾ 이처럼 사명감을 느끼게 되며 1980년대부터 기독교무용단이 창단하기 시작, ‘기독교 무용’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였다. 전통 클래식 발레로 기독교 무용 작품을 선보인 조승미 발레단이 창단된 것이 기독교 무용 단체로서의 최초라고 할 수 있다.⁴⁹⁾ 이후 수많은 단체가 창단되었는데, 대표적으로 1985년 ‘박경숙 발레단’과 1989년 ‘박순자 선교 무용단’이 창단되었고, ‘박순자 선교 무용단’은 1998년 ‘한국선교 무용예술원 한국선교무용단’으

44) 최지연.(2018). “교회 사역에서의 기독교 무용 활성화 방안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장신대학교 일반대학원, p.66.

45) 상계논문.

46) 한재선.(2008).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 무용의 유형과 현황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p.76.

47) 배에스더.(2013). “기독교와 예배 무용을 통한 선교방안의 모색.”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p.53.

48) 박은영, 전계논문, p.31.

49) 한재선, 전계논문, p.77.

로 명칭을 바꾸어 재창단하였으며, 현재는 ‘아르곤 댄스 어소시에이션’이라는 이름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선교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 문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⁵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찬양 율동’ 혹은 ‘몸 찬양’, ‘율동 찬양’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율동에서 찬무로, 몸 찬양으로, 또는 워십댄스로 변화하고 발전을 거듭했다. 이후 기독교 무용을 교육하는 대학교 무용과를 비롯해, 평생교육원 선교 무용 과정과 그 외 전문 교육기관, 교회 문화원 등에서 교육을 통해 기독교 무용가가 양성됐다.⁵¹⁾ 1994년 ‘헵시바 선교예술단’, 1995년 전유오 단장이 이끄는 ‘물맷돌 단체’, 1997년 ‘하시딤 발레단’ 등이 창단되었다. 기독교 무용은 교회와 그 외 다수의 단체를 통하여 작품이 만들어졌고, 공연을 통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 오직 복음을 위한 기독교 문화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고 있다.⁵²⁾

또한 1999년, 박영애를 중심으로 CDFK(Christian Dance Fellowship Korea)가 창단되었다. CDFK는 ICDF(International Christian Dance Fellowship)의 한국지부로서 움직임과 무용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무용인들의 연합을 도모하며, 무용을 통한 예배, 축제, 교육, 선교, 치유, 오락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세상 가운데 열매 맺는 사역을 위한 공동체이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예술무용의 전문화와 신진 무용인의 발굴 및 양성을 위해 크리스천 댄스 페스티벌을 주최한다.⁵³⁾

더 나아가 2015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무이 기독교 무용 석사과정인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에 기독교 무용학과가 박영애에 의해 생기며,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이론적 정립과 전문적인 기술을 겸비한 전문 무용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배출하고 있다.

이처럼 예배 무용이 활성화되다 2019년,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서 온라인매체를 매개체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이 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무용은 예배, 집회, 교육, 치유, 선교, 영상, 문화예술로서의 공

50) 최지연, (2018). 전계논문, pp.66-67.

51) 윤초롱, 전계논문, p.19.

52) 최지연, (2018). 전계논문, p.67.

53) 박은영, 전계논문, p.34.

연 등 여러 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요즈음 무용과 신학을 병행한 교육을 통해 전문 무용 전공자들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으며, 현실에 발맞추어 기독교 무용을 가르치는 일반 대학교와 전문 대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두드러지고 있다. 현재 많은 선교 무용 단체들이 생겨났으며 민족무용, 발레, 현대무용 등 다양한 움직임으로 여러 장르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무용으로 시도되고 있다.⁵⁴⁾

제 4 절 예배 무용의 유형 및 현황

예배 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표현하는 무용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모든 무용을 의미하며 어린이 율동부터 워십 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한국교회에서는 무용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오늘날 교회 안팎으로 활용되고 있는 무용의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관점에 따라 선행연구자마다 용어나 정의의 경계가 모호한 점이 있었으나 최근 자료와 오늘날 현황을 토대로 정리하였다. 예배 무용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되는데, 세부적으로 몸 찬양(율동)과 수어 무용, 워십 댄스(예배 무용), CCD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몸 찬양은 한국교회가 1992년에 찬양 율동을 성서에 따른 용어로 정리한 단어이다. 찬양 율동은 교회학교에서 흥미 위주, 분위기 집중 등을 위해 사용되었는데, 율동의 목적을 찬양을 위한 것으로 새로이 하면서 현재는 몸 찬양이라 불린다. 상체를 사용한 쉽고 단순한 움직임을 통해 교회학교뿐 아니라 경배와 찬양 시간에 모든 성도가 예배에 참여함으로 성도 간에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무용이다.⁵⁵⁾

수화언어(Sign language)란 농인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사소통의 양식으로 손의 움직임, 표정, 시선, 입의 모양, 머리의 움직임 등을 함께 사용하여 메시지를 표현한다. 한때는 수화라는 어휘 하나가 수화언어 전반을 가리키는

⁵⁴⁾ 한재선, 전계논문, p.8.

⁵⁵⁾ 주은혜.(2008). “춤을 통해 본 기독교 문화와 교육적 과제.”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p.24.

데에 사용되었으나, 2016년 한국 수화 언어법 제정 이후로는 공식 용어로 수화언어를 수어로 쓰게 되었다. 오늘날 무용 용어 또한 수화 찬양에서 수어 무용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수어 무용은 모든 찬양을 수어로 표현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무용이다.⁵⁶⁾ 사역팀으로는 밀알 선교단, 주사랑 농아예술 선교단 등 다양하며, 더 나아가 테바 아트 무브먼트와 에제르 코이노니아 선교단 등과 같은 오늘날 수어에 전문적인 움직임을 확장하여 작품성이 있는 곡으로 예배와 공연으로 쓰임 받는 선교단이 늘고 있다.

워십(Worship)은 worth(가치 있다)+ship(신분)의 합성어로 말의 뜻은 "존경과 존귀함을 받을 가치가 있는 자"이다. 이 말을 좀 더 구체화하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이란 뜻이 된다. 여기에 Dance(춤)라는 단어가 합해져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의 감격을 춤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한다.⁵⁷⁾ 기독교 무용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어이며 몸 찬양, 경배의 춤, 찬무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다.⁵⁸⁾ 워십 댄스는 몸 찬양과 다르게 상체와 하체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무용수들이 여러 가지 대형을 이루어 추며 때로는 소도구를 이용하기도 한다. 주로 교회 안에서 찬양 예배 시간에 예배의 내용과 의미를 더욱 깊게 부연해 주는 성격을 지니며 특별한 절기를 기념하는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사에 맞춰 몸으로 표현하고 보여주는 무용이기에 성도들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고 무용수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준다.⁵⁹⁾

C.C.D(Contemporary Christian Dance)는 워십 댄스보다 더 세련되고 현대적인 빠른 비트의 CCM과 힙합, 재즈 등과 같은 최신 음악의 장르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을 말한다. C.C.D는 P.K(Promise Keepers)를 선두로 1999년~2000년 사이에 시작되어 확산하였으며, 기독교 청소년들 사이에서 붐을 일으키고 있는 문화 장르로서 어깨춤부터 고도의 기술이 있어야 하는 동작까지 모든 스트릿댄스(streetdance, 힙합, 펑키, 랩, 팝핀, 재즈, 브레이크 등)을

56) 최지연, (2018). 전계논문, p.64.

57) 최지연, (2012). "기독교 무용의 가치 인식변화에 따른 공연 활성화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p.17.

58) 이지연, 전계논문, p.42.

59) 상계논문, pp.42-43.

일컫는다.⁶⁰⁾ C.C.D는 메시지를 담은 춤으로 문화에 대해 갈급함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곡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지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 안무를 익히거나 안무를 창작하여 교회 행사 때 발표회를 비롯한 해외 선교 활동, 길거리 거리공연, 유튜브 채널 운영 등 활동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⁶⁰⁾ 최지연,(2012). 전개논문, p.17.

제 3 장 코로나19 이전 예배 무용 인식의 흐름

제 1 절 코로나19 이전 예배 무용 인식의 흐름 분석

예배 무용이 보급, 보완되어 활성화되면서 무용에 관한 관심을 두게 되고, 무용이 분위기를 띄우는 수단에서 예배를 위한 한 형식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예배의 한 형식으로 기독교 무용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며 기독교 무용의 당위성 및 예배형식의 확립을 위하여 1987년을 시작으로 기독교 무용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현재까지 연구된 120여 편의 학위논문 중 인식과 관련된 논문을 별도로 분류하여 살펴본바 모두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한 양적연구를 진행하였고, 주로 성도 또는 목회자, 그리고 신학생을 대상으로 분류하여 연구된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 석사학위논문은 1995년 변현정의 「기독교 무용 예배 활성화를 위한 인식도 조사」⁶¹⁾가 처음으로 발표되었고, 박사학위논문은 2008년 조혜경의 「현 기독교 무용의 실체와 미래 방안 모색」⁶²⁾이었다. 선행연구의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대 1편, 2000년대 9편, 그리고 2010년도에 4편으로, 변현정(1995), 윤초롱(2002), 장소희(2002), 함성애(2005), 최길순(2005), 이지연(2005), 김은희(2006), 박미정(2006), 조혜경(2008), 김다영(2008), 이정인(2010), 이한나(2010), 이승은(2011), 최수진(2016), 그리고 최지연(2018)으로 총 15편이다. 이에 따른 내용은 다음 [표 3-1] 과 [표 3-2], [그림 3-1] 과 같다.⁶³⁾

61) 변현정.(1995). “기독교 무용 예배 활성화를 위한 신도들의 인식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62) 조혜경.(2008). “현 기독교 무용의 실체와 미래 방안 모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63) 김현정.(2022). “기독교 무용의 실태와 발전 방안: 기독교 무용 교육 연구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pp.3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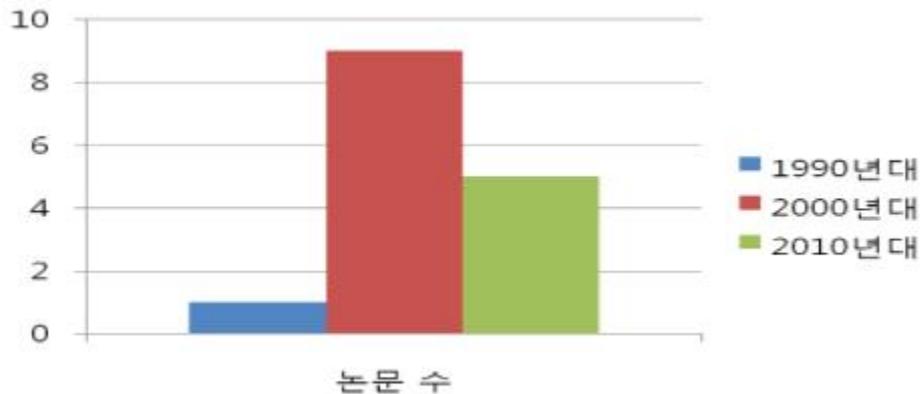
[표 3-1]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인식 연구논문

연도	논문 제목	연구자	유형	연도별 논문 수
1995	기독교 무용 예배 활성화를 위한 신도들의 인식도 조사	변현정	석사학위	석사학위: 1편
2002	한국기독교 무용의 현황과 발전 방안	윤초롱	석사학위	석사학위: 8편 박사학위: 1편
2002	기독교 무용의 인식조사를 통한 활성화방안 모색	장소희	석사학위	
2005	무용의 기독교에서의 기능과 인식에 관한 연구	함성애	석사학위	
2005	목회자들의 문화 사역에 대한 인지도: 기독교 무용을 중심으로	최길순	석사학위	
2005	기독교 무용의 가치 인식에 관한 연구	이지연	석사학위	
2006	교회 내에서의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인식	김은희	석사학위	
2006	신학생들의 기독교 무용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박미정	석사학위	
2008	현 기독교 무용의 실체와 미래 방안 모색	조혜경	박사학위	
2008	worship dance 참여자의 인식과 기독교 신앙 활동 몰입 경험의 관계	김다영	석사학위	
2010	기독교 무용의 인식변화 분석	이정인	석사학위	
2010	예배 무용에 대한 신학생들의 인식도	이한나	석사학위	석사학위: 4편 박사학위: 1편
2011	이주 노동자 문화선교를 위한 기독교 무용의 인식과 활용 가능성	이승은	석사학위	
2016	현대 교회 내 기독교 무용의 인식분석에 의한 개선 방향	최수진	석사학위	
2018	교회 사역에서의 기독교 무용 활성화방안 연구	최지연	박사학위	

[표 3-2]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인식 연구논문(연구 대상)

연대	논문 수	연구자	연구 대상
1990년대	1	변현정(1995)	성도
2000년대	9	윤초롱(2002)	목회자와 신학생
		장소희(2002)	성도
		함성애(2005)	성도와 신학생
		최길순(2005)	목회자
		이지연(2005)	성도
		박미정(2006)	신학생
		김은희(2006)	성도
		조혜경(2008)	목회자
		김다영(2008)	성도
2010년대	5	이정인(2010)	성도와 신학생
		이한나(2010)	신학생
		이승은(2011)	성도 ⁶⁴⁾
		최수진(2016)	목회자
		최지연(2018)	성도 ⁶⁵⁾

(단위: 편)



[그림 3-1]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인식 연구논문 현황

⁶⁴⁾ 1989년 국내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며 경기지역 이주노동자기독교인 229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⁶⁵⁾ 기독교 무용 프로그램을 기획, 지도, 또는 무용단에 참가하고 있는 경기지역 소재 기독교인 100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연도별로 분류한 선행연구 중 성도를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을 택일하여 공통으로 연구한 기독교와 무용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무용의 예배에 관한 인식, 예배 무용의 필요성, 무용 예배에 관한 관심과 만족도, 참여 의사 및 개선점 등을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인식의 흐름을 분석하였다. 모두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2020년대는 인식의 변화에 관한 발표된 논문이 없으므로 1990년대에 변현정(1995), 2000년대 김은희(2006), 그리고 2010년대는 최지연(2018)의 논문을 토대로 인식의 흐름을 분류하였으며, 다음 [표 3-3], [그림 3-2] 와 같다.

[표 3-3] 연도별 예배 무용에 대한 가치 인식 흐름 66)

인식의 유형	응답 내용	%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기독교와 무용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꼭 필요하다	20.3	47	18.4
	필요하다	76.8	22	75.5
	꼭 필요하진 않다	2.9	16	4.1
	전혀 상관없다	0	4	0
	모르겠다	0	6	2.0
	기타	0	5	0
예배 무용이 찬양대와 흡사한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다	73.9	72	65.3
	아니다	15.9	7	4.1
	모르겠다	10.1	13	30.6
	기타	0	8	0
예배 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79.7	72	81.6
	아니다	5.8	6	2.0
	모르겠다	14.5	14	16.3
	기타	0	8	0

66) 질문의 유형이 연도별로 다르기에 최근에 작성한 최지연(2018)의 논문을 기준으로 표를 작성하였다.



[그림 3-2] 연도별 예배 무용에 대한 가치 인식

선행연구를 통해 예배 무용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무용에 대한 인식 논문이 1995년에 처음으로 발표되며 기독교 무용의 인식에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둘째, ‘기독교와 무용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질문에 대한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1990년대에 ‘꼭 필요하다’가 20.3%, ‘필요하다’가 76.8%로 나타났다. 2000년대는 ‘꼭 필요하다’가 47%, ‘필요하다’가 22%로 나타났으며, 2010년대는 ‘꼭 필요하다’가 18.4%, ‘필요하다’가 75.5%로 나타났다.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다고 답한 사람은 1990년대와 2010년대는 0%였지만 2000년대는 4%의 답변이 있어 논문이 많이 쓰이고 인식에 관한 연구가 늘었지만, 기독교와 무용에 대한 인식은 2000년대가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예배 무용이 찬양대와 흡사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질문에 1990년대는 ‘그렇다’의 답변이 73.9%, 2000년대는 72%, 2010년대는 65.3%로 인식이 낮아졌다. 하지만 ‘아니다’의 부정적인 답변은 1990년대는 5.8%, 2000년대는 6%, 2010년대는 2%로 낮아졌다. 답변의 결과는 낮아졌지만, 찬양대와 흡사한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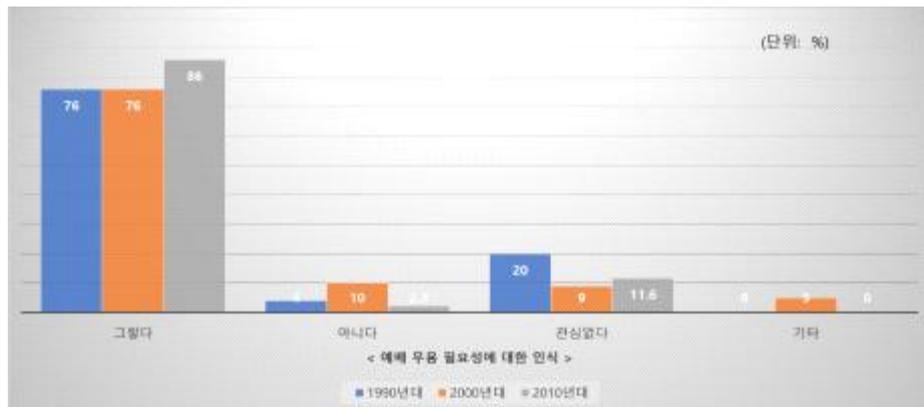
넷째, ‘예배 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질문에 ‘그렇다’가 1990년대에 79.7%, 2000년대 72%, 2010년대가 81.6%로 나타났

다. 2000년대에 낮아지긴 했지만 1990년대와 같은 70%대로 ‘아니다’라는 답변이 2010년대에 5.8%에서 2%로 확연히 줄어든 것을 보면, 예배 무용이 찬양하는 목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위와 같은 답을 살펴보면 예배 무용의 가치에 대한 인식은 2010년대에 긍정적인 답변이 유지되고 있지만, 찬양대와 흡사한 기능을 한다는 인식은 2010년대에 65.3%로 낮아졌다. 가치의 인식은 높아졌지만, 예배 안에 찬양대와 같은 역할로 세워져야 하는 인식은 아직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표 3-4] 연도별 예배 무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흐름

인식의 유형	응답 내용	%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기독교 내 예배 무용이 있기를 희망한다.	그렇다	76	76	86
	아니다	4	10	2.3
	관심 없다	20	9	11.6
	기타	0	5	0



[그림 3-3] 연도별 예배 무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위 [표 3-4] 와 [그림 3-3] 을 보면 ‘기독교 내 예배 무용이 있기를 희망한다.’ 질문에 1990년대 ‘그렇다’가 76%, 2000년대 76%, 2010년에 86%로 예배 무용에 관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기독교 무용이 영적 성장과 참된 신앙을 근거로 문화예술과의 접목을 통해 메시지를 보다 더 쉽게 복음을 전파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⁶⁷⁾ 하지만 ‘관심 없다’라는 답변도 1990년대 20%, 2000년대 9%, 그리고 2010년도에 11.6%로 1990년대보다는 줄어들었지만, 예배 무용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일부 있어 인식에 대한 변화가 필요함을 느낀다.

[표 3-5] 연도별 예배 무용에 관한 관심과 만족도 조사

인식의 유형	응답 내용	%		
		1990 년대	2000 년대	2010 년대
예배 무용에 관한 관심도	관심이 있다.	79.0	63.8	61.8
	관심이 없다.	5.8	15.2	38.2
	모르겠다.	15.2	21.0	0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60.1	60.1	66.7
	만족하지 않다.	12.3	12.3	5.6
	모르겠다.	26.1	26.1	16.7
	기타	1.4	1.4	11.1
예배 무용을 통한 마음의 변화	감동하였다.	85.5	85.5	83.3
	별 느낌 없었다.	5.1	5.1	11.1
	그저 그랬다.	7.2	7.2	5.6
	아쉬웠다.	2.2	2.2	0

67) 최지연,(2012). 전개논문, p.45.



[그림 3-4] 연도별 예배 무용에 관한 관심도 및 만족도

위 [표 3-5] 와 [그림 3-4] 의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지연(2018)의 논문에 관심도의 항목이 없어 이승은(2011)의 논문에서 ‘예배 무용에 참여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여성분의 답변을 기재하였다. 김은희(2006)의 논문에서 만족도와 마음의 변화에 대한 설문이 없어 윤초롱(2002)의 설문 답변을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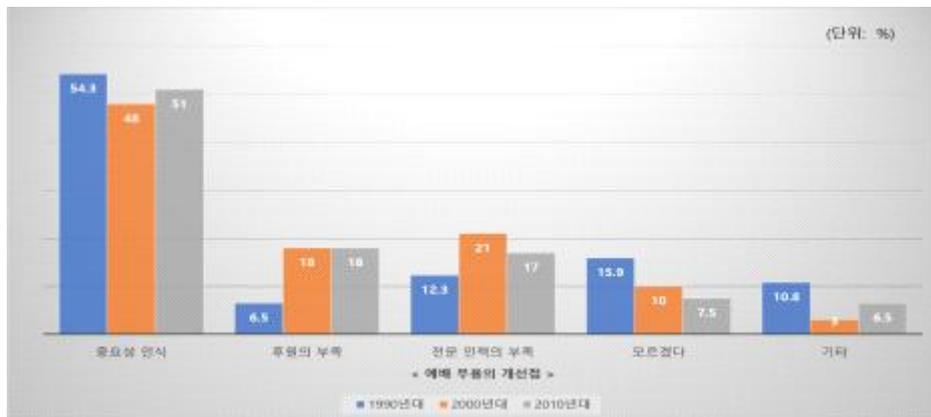
둘째, ‘예배 무용에 관한 관심도’ 질문은 ‘예배 무용에 참여 의사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990년대는 79%, 2000년대는 63.8, 2010년대는 61.8%가 ‘관심이 있다’라는 결과의 답변을 했다. 관심도에 관해서는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지만 2010년대 질문의 대상은 이주 노동자 성도를 대상으로 설문한 답변이라 상황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림에도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관심도 인식이 15% 이상 낮아진 점을 고려하면 교회 내에서 함께 예배 무용을 드릴 수 있는 계기를 통해 관심도의 척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예배 무용의 만족도’ 질문에 ‘만족한다’의 답변이 1990년대와 2000년대 60.1%이고 2010년대는 66.7%의 답변을 했고,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답변도 1990년대 26.1%에서 2010년대 16.7%로 줄어들고 있어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만족도의 척도로 감동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감동하였다’의 답변이 1990년대와 2000년대는 85.5%이고 2010년대는 83.3%의 답변으로 미비하게 줄어들었고, ‘별 느낌 없었다’라는 답변은 1990년대 5.1%에서 2010년대 11.1%로 늘어난 추이라 대체로 80%대의 높은 답변이지만 감동의 인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만족할 수 있는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표 3-6] 연도별 예배 무용 활성화 시 장애 요소

인식의 유형	응답내용	%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기독교 무용의 활성화 시 가장 큰 장애 요소	중요성 인식	54.3	48	51
	후원의 부족	6.5	18	18
	전문 인력의 부족	12.3	21	17
	모르겠다.	15.9	10	7.5
	기타	10.8	3	6.5
예배 무용에 담긴 바라는 내용	성경 내용	65.2	76	50
	체험 이야기	9.4	9	16.7
	경배와 찬양 내용	25.4	11	26
	모르겠다.	0	1	0
	기타	0	3	7.3



[그림 3-5] 연도별 예배 무용 활성화 시 장애 요소

위 [표 3-6] 와 [그림 3-5] 의 분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예배 무용 제도화의 장애 요소는 연대마다 50% 이상의 답변이 ‘예배 무용의 중요성 인식 부족’으로 지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문 인력의 부족과 후원의 부족도 장애 요소로 답변했다. 예배 무용 시 바라는 내용 또한 연대의 흐름이 흘러도 성경이 높은 우위를 나타내고 있어 아무 의미 없는 움직임이 아닌 성경적 메시지가 담긴 무용을 통하여 은혜를 받길 원했다.

연구의 결과는 19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기독교 안에서 무용은 찬양과 선교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무용 예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 내 예배 무용이 있기를 희망한다’라는 답변이 76%에서 86%로 상승했다. 이는 기독교 무용이 영적 성장과 참된 신앙을 근거로 문화예술과의 접목을 통해 메시지를 보다 더 쉽게 복음을 전파하는 긍정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⁶⁸⁾ 그러나 성서에 따른 당위성보다는 무용으로 인한 예배의 생동감을 주기에 필요하다는 인식과 최지연(2018) 논문에서 기독교 무용이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기에 여전히 인식의 변화 및 활성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기독교 무용의 역할 중 찬양의 역할은 계속 긍정적인 답변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성가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갈수록 긍정적인 답변이 줄어들고 있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며 타 장르 도입에 대해 관심이 많아지고 있었다. 함성애(2005)의 논문에 다양한 장르의 춤을 교회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69.6%로 매우 높게 나왔다. 그러나 ‘성도들의 인식 보편화까지 기다려야 한다.’도 21.0%나 응답하였고,⁶⁹⁾ 2010년도 결과에서도 도입의 가능성이 보통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이는 예배에서

68) 최지연, (2012). 상계논문.

69) 함성애, (2005). “무용의 기독교에서의 기능과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p.44.

타 장르에 대한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과 메시지를 전함에 있어 적합한 지에 대한 예배로서의 활용이 불확실하기에 나온 응답이 아닐지 추측해 본다. 기독교 무용의 활성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답변은 2000년도에는 ‘가능할 것이다’에 76%였는데 2010년도에는 42.9%로 50%도 되지 않게 낮아졌다.

이상과 같이 무용은 기독교에 필요한 것으로 긍정적인 성도들의 인식 흐름에도 불구하고, 성서에 따른 당위성에 의해 예배 무용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 2 절 코로나19로 인한 교회 상황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는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생하여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 질환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침방울이 호흡이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되며, 감염되면 약 2~14일(추정)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도)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폐렴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지만 무증상 감염 사례도 드물게 나오고 있다.⁷⁰⁾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명명하는 데에 있어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지만, WHO(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2월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공식 명칭을 ‘COVID-19’로 정했다.⁷¹⁾ 이에 우리 정부는 2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한글 공식 명칭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국문 약칭 코로나19)로 명명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3월 11일 WHO는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선언했다.⁷²⁾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보균자 격리 및 마스크 착용,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학교, 회사, 교회 등 모든 일상생활을 언택트(Untact), 즉 비

7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in <https://knaps.or.kr/273>

71) COVID-19: CO는 코로나(Corona), VI는 바이러스(virus), D는 질환(disease), 19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을 의미한다(<https://knaps.or.kr/273>).

72) “‘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한글 명칭- 「메디칼업저버」,” in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49>

대면 흐름이 가속화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2020년 3월부터 2년 1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였으며, 팬데믹 해제는 2020년 1월 30일 선포 이후 3년 4개월 만인 2023년 5월 5일에 발표하였다.⁷³⁾ 3년 4개월간 유지된 위기 상황은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교회에 가장 큰 변화는 주일 현장 예배 참석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지용근 대표는 2022년 8월 9일 ‘한국교회 트렌드 2023-한국교회를 말한다’라는 세미나에서 통계를 근거로 이를 분석했다.

예장 통합총회와 기아 대책,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예장 통합 소속 담임목사 981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거리 두기 해제 후 코로나19 이전 대비 현장 예배 참석률은 장년 성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73%였다. 교회학교는 43%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즉 코로나19 이전 출석한 장년 교인 10명 중 3명 정도, 교회학교 아이들 10명 중 6명 정도가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것이다.⁷⁴⁾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3-6]과 같다.

① SBNR의 증가



[그림 3-6] 거리 두기 전면 해제 후 코로나19 이전 대비 예배 참석 정도

73) 중앙방역대책본부,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해제 발표” 질병관리청, 2023년 05월 06일자.

74) 기독교일보, 2022. 8. 31.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8165#share>

‘Spiritual but not Religious’를 뜻하는 SBNR은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적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증가한 것이다.⁷⁵⁾ 이뿐만 아니라 플로팅 크리스천⁷⁶⁾이 늘어나며 담임목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 수용도가 높아지며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경향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앙이 약화하고 인과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⁷⁷⁾ 더불어 한국교회에 문화 사역에도 제동이 걸렸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문화 사역이 활성화되면서 각 교회에 예배 무용을 하는 팀이 많이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거리 두기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인해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없었던 무용팀은 활동을 자동 중단하게 되었다.

교인들의 출석과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침체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교회에는 예배, 집회, 야유회, 연합 성가대, 체육대회 등 갖은 행사와 소그룹을 부활시켰음에도 예배 무용팀은 부활하지 못하고 사라진 팀이 많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음에도 아직도 이원론적인 사고와 전통 보수주의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왜곡시키는 경향으로 흘러 예배 중에 무용은 불필요하다는 의식과 기독교 발전에 장애 요소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하물며 코로나19 이후 예배 무용을 드리지 않았으니 더욱 생각은 굳어졌으리라 생각한다.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하며 회복이 일어난다. 즉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의 문제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이 회복될 것이다. 이처럼 예배 무용의 회복을 통해 한 영혼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예배 무용팀이 사라진 교회도 있지만, 코로나 시기에 예배 무용을 드리며 하나님이 허락한 몸을 통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교회가 있다. 중단했음에도 예배 무용의 필요를 알아 부활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가 있다. 과거부터 예배 무용은 신앙의 표현이었으며 하나님과 소통의 한 수단이었다. 예배 무용의 회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75) 기독교일보. 2022. 8. 31.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8165#share>

76) 플로팅 크리스천(Floating Christian)은 이름 그대로 ‘떠 있는’ 기독교인들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출석 교회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다른 교회들의 예배에 참여해 설교를 듣는다.

77) 기독교일보. 2022. 8. 31.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8165#share>

따라서, 교회에서 어떻게 예배 무용을 시행하고 있는지 살피고, 성도들의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예배 무용의 보급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제 4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 문제 및 연구가설 제시

본 연구는 실행 시기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대표적인 4개 교회를 대상으로 인식도를 알아보고 네 교회의 인식 차이 및 필요도, 관심도, 그리고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이다. 또한 개선점 및 코로나19 이전의 인식과 코로나19 이후 인식의 변화도 연구하고자 한다.

1) 연구 문제제시

연구 1. 4개 교회의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연구 2.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구 3.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는 예배 무용의 필요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4.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는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5.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필요도는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6.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인식변화는 있었는가?

본 연구의 연구 문제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4개 교회를 선정하여, 코로나 19 이후 예배 무용 인식 차이 비교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 연구의 가설

- 연구가설 1.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연구가설 2.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필요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연구가설 3.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관심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연구가설 4.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 연구가설 5.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는 예배 무용에 대한 필요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6.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는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연구가설 7. 예배 무용에 대한 필요도는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에 정(+)¹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 2 절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은 코로나19 이전에는 교회 내 예배 무용을 실행한 교회였으나, 코로나19 이후 예배 무용 실행유형이 다른 대표적인 4개의 교회를 선정하였다. 코로나19 기간에 예배 무용을 꾸준히 유지한 교회와 코로나19 기간 중 예배 무용을 부활한 교회, 코로나19 해제 후 예배 무용을 부활한 교회, 그리고 코로나19 해제 이후에도 예배 무용을 중단한 교회의 성도와 목회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령은 10대 이상의 대상자로 2023년 현재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교회마다 천명 이상의 성도가 재적된 교회이며 각 교회 10대 이상의 모든 교인에게 구글 설문지를 발송하여 7일 동안 설문지를 수집했다. 코로나19 기간에 유지한 교회는 153명,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 152명,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 107명,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 75명 중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에 대한 응답이 빠졌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판단되는 15명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기간에 유지한 교회 150명,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 150명,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 100명, 그리고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 72명을 본 연구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4-1] 과 같다.

[표 4-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472명)	백분율(%)
성 별	남	123	26.1
	여	349	73.9
연 령	10대	14	3.0
	20대	25	5.3
	30대	44	9.3
	40대	122	25.8
	50대	157	33.3
	60대	83	17.6
	70대 이상	27	5.7
신앙 경륜	모태신앙	143	30.3
	10년 미만	41	8.7
	10년 이상	29	6.1
	20년 이상	70	14.8
	30년 이상	189	40.0
합계		472	100.0

제 3 절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대표적인 4개 교회의 코로나19 이후 예배 무용 실행유형 비교 및 인식 차이를 실증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자료수집의 도구로 구글 설문 을 이용한 설문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변현정(1995), 김은희(2006), 윤초롱(2002), 이지연(2006), 이정인(2010), 최지연(2018)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그 중 이정인(2010)의 「기독교 무용의 인식변화 분석」에 사용한 설문을 중점 으로 예배 무용 가치에 대한 인식과 필요도, 관심도, 만족도, 그리고 문제점들 의 질문을 참고하여 설문 의 기초를 삼았다.

작성된 설문지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지도교수님과 전문가 와 상의하여 수정 보완하였고, 예배 무용을 하는 리더자 5명을 대상으로 예배 무용에 대해 인식조사 설문을 예비로 실행하였다. 설문 에 관한 구성은 다음 [표 4-2] 와 같다.

[표 4-2] 설문지의 구성 지표

구성 지표	구성 내용	문항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신앙 경륜 등	9
인식	예배 무용에 관한 인식	7
	예배 무용 필요성에 관한 인식	4
	예배 무용에 관한 관심도 인식	4
	예배 무용에 관한 만족도 인식	8
	예배 무용 개선점에 관한 인식	8
총문항수		40

제 4 절 자료수집 절차

이 연구의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이고 연구설계 및 절차는 다음 [그림 4-1] 과 같다.



[그림 4-1] 자료수집 절차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문헌자료를 통해 연구 계획 및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9월부터 10월까지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여 지도교수님과 전문가를 통해 설문지 검토 및 수정·보완하였다. 10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인터넷 설문을 통해 설문지 배부 및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답변을 제외한 472명의 답변을 토대로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자료 처리 및 분석을 하였다.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논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제 5 절 자료 처리 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실행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특성, 예배 무용 인식 및 예배 무용을 희망하는 경우의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셋째, 예배 무용 인식도, 필요도, 관심도, 및 만족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넷째, 예배 무용 인식도, 필요도, 관심도, 및 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행하였다.

다섯째,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인식도, 필요도, 관심도, 및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 변량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때 쉘페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가 예배 무용 필요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5 장 연구 분석의 결과

제 1 절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결과

1)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본 연구의 척도에서 응답자가 일관성 있게 응답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신뢰성이란 측정 문항 간의 내적 일관성(internal consistency)을 뜻하며 본 연구에서는 측정 도구들에 관한 정확성이나 정밀성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하나의 개념에 대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에 사용되는 크론바흐 알파계수(Cronbach's alpha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신뢰도 조건은 Cronbach's alpha 값이 0.6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 [표 5-1] 은 변수별 신뢰도 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5-1] 변인별 신뢰도 계수

변수	Cronbach의 알파	항목 수
예배 무용 인식도	0.812	5
예배 무용 필요도	0.911	4
예배 무용 관심도	0.711	4
예배 무용 만족도	0.943	8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에 대해 살펴보면 예배 무용 인식도에 대한 신뢰 계수가 0.812, 예배 무용 필요도에 대한 신뢰계수가 0.911, 예배 무용 관심도에 대한 신뢰계수가 0.711, 예배 무용 만족도에 대한 신뢰계수가 0.943로 나

타나, 모두 0.6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므로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신뢰할 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예비 무용 인식도, 필요도, 관심도, 및 만족도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주요 변수의 특성 확인을 위해서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고 결과는 아래 [표 5-2] 와 같다. 모든 변인의 점수 범위는 1~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예비 무용 인식도에 대한 평균은 3.53점, 예비 무용 필요도에 대한 평균은 3.62점, 예비 무용 관심도에 대한 평균은 3.03점, 예비 무용 만족도에 대한 평균은 3.76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료의 정규성 가정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를 확인하였다. 왜도는 절댓값 기준으로 2 미만, 첨도는 절댓값 기준으로 7 미만이면 자료가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는데 (Curran, West & Finch, 1996)⁷⁸⁾ 모든 변인의 왜도는 ± 2 미만, 첨도는 ± 7 미만으로 결과가 나왔다. 즉 자료는 정규성 가정을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회귀분석과 같은 모수 통계를 진행하는 데 있어 자료의 분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5-2] 예비 무용 인식도, 필요도, 관심도, 및 만족도의 기술통계

	N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예비 무용 인식도	471	1	5	3.53	0.664	-0.064	0.468
예비 무용 필요도	472	1	5	3.62	0.763	-0.176	0.049
예비 무용 관심도	472	2	5	3.03	0.660	0.229	0.063
예비 무용 만족도	472	1	5	3.76	0.664	-0.166	0.282

⁷⁸⁾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6).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제 2 절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5-3] 과 같다. 성별 분포는 남자가 26.1%, 여자가 73.9%로 나타났다. 연령은 50대가 33.3%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5.8%, 60대가 17.6%, 30대가 9.3%, 70대 이상이 5.7%, 20대가 5.3%, 10대가 3.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앙 경륜은 30년 이상이 40.0%로 가장 많았고, 모태신앙이 30.3%, 20년 이상이 14.8%, 10년 이하가 8.7%, 10년 이상이 6.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례 여부는 ‘그렇다’가 98.5%, ‘아니다’가 1.5%로 대다수 응답자가 세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회 직분은 직분자가 62.3%로 가장 많았고 일반 성도가 34.5%, 목회자가 3.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단 소속은 합동이 68.2%, 감리가 31.8%로 나타났다. 교회 규모는 2,000-3,000명 이하가 53%, 1,000-2,000명 이하가 31.8%, 3,000-4,000명 이하가 2.9% 순으로 나타났다. 매주 교회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95.3%, 아니다가 4.7%로 나타나 대다수가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배 방법으로는 대면 예배가 96.6%, 영상예배가 3.4%로 나타났다.

[표 5-3]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472)

일반적 특성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23	26.1
	여	349	73.9
연령	10대	14	3.0
	20대	25	5.3
	30대	44	9.3
	40대	122	25.8
	50대	157	33.3
	60대	83	17.6
	70대 이상	27	5.7
신앙 경륜	모태신앙	143	30.3
	10년 미만	41	8.7

	10년 이상	29	6.1
	20년 이상	70	14.8
	30년 이상	189	40.0
세례 여부	그렇다	465	98.5
	아니다	7	1.5
교회 직분	목회자	15	3.2
	직분자	294	62.3
	일반성도	163	34.5
교단 소속	합동	322	68.2
	감리	150	31.8
교회 규모	1000-2000명 이하	150	31.8
	2000-3000명 이하	250	53
	3000-4000명 이하	72	2.9
교회 출석 여부	그렇다	450	95.3
	아니다	22	4.7
예배 방법	대면 예배	456	96.6
	영상 예배	16	3.4
전 체		472	100.0

제 3 절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교회의 인식도 분석

연구 문제 1에 대한 대표적인 4개 교회의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은 어떤 지 유형별 실행 현황을 지도자의 면담을 통해 살펴보았고, 예배 무용의 인식은 설문한 성도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1) 코로나19 기간 예배 무용을 꾸준히 유지한 교회

인천에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A 교회'는 재적 1,600명 규모이다. 코로나19 이후 현재 출석 인원은 700~800명, 교회학교는 70~80명 정도로 성도의 대부분이 나이가 많은 편에 속한다. 예배를 중요시하는 목회방침과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코로나19 기간에 대면 예배를 드리며 예배 무용도

꾸준히 교회 안에서 올렸다.

예배 무용팀 경력은 10년이며 6명의 비전공자로, 예배 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자원해서 팀이 세워졌다. 주로 한국 무용에 기반한 창작무용을 올려드리고 1년에 3~4회 고정으로 4부 오후 예배에 예배 무용이 진행되며, 교회에서 요청할 때 새 가족 환영 예배나 부활절, 성탄절 등 절기 때 올려드린다. 작품 주제는 절기의 흐름에 따라 곡을 선정하고 부활절이나 성탄절 예배 때는 성가대 칸타타에 맞춰 안무하여 2~3곡 정도 예배 무용으로 드린다.

코로나19 기간 교회에서 대면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예배 무용도 고정으로 계획한 순서에 올려드렸고 딱 한 번, 정부 방침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준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적이 있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기존 예배 무용팀의 변화는 없고 최근 권사님들 대상으로 새로이 팀이 생겨 예배 무용이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기간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목사님의 방침이 있어서 유지가 되었지만, 사회적으로 억압된 상황에서 예배 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 나눔을 갖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 감사했다고 한다. 예배 무용을 통해 신앙을 더욱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무용팀 지도자의 피드백이 있었다.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의 일반적 특성 및 예배 무용에 관한 인식은 다음 [표 5-4], [표 5-5] 와 같다.

[표 5-4]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빈도(150명)	퍼센트
성별	남	49	32.7
	여	101	67.3
연령	10대	4	2.7
	20대	9	6
	30대	16	10.7
	40대	33	22
	50대	35	23.3

	60대	42	28
	70대 이상	11	7.3
신앙 경륜	모태신앙	36	24
	10년 미만	16	10.7
	10년 이상	17	11.3
	20년 이상	25	16.7
	30년 이상	56	37.3
세례 여부	그렇다	149	99.3
	아니다	1	0.7
교회 직분	목회자	5	3.3
	직분자	94	62.7
	일반성도	51	34
교회 출석 여부	그렇다	140	93.3
	아니다	10	6.7
예배 방법	대면 예배	148	98.7
	영상 예배	2	1.3
전 체		150	100.0

[표 5-5]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의 예배 무용 인식

	질 문	구 분	백분율(%)
예 배 무 용	예배 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7
		그렇지 않다	14.7
		보통이다	52.7
		그렇다	19.3
		매우 그렇다	10.7
가 치 에	예배 무용이 신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3.3
		보통이다	38
		그렇다	36.7
		매우 그렇다	22

관 한 인 식	예배 무용이 성가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1 24.7 50.7 20.7
	예배 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7 0.7 22 43.3 33.3
	예배 무용이 설교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7 8.7 37.3 35.3 18
예 배 무 용 의 필 요 도	예배 시간에 예배 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4.7 36 41.3 18
	예배 무용이 교회에 예배를 돕는 역할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7 2.7 24.7 49.3 22.7
	예배 무용에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5.3 44.7 35.3 14.7

예배 무용의 관심도	예배 무용 활성화를 위해 후원할 의사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10.7 56.7 26 6.7
	예배 무용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8.7 34 36.7 19.3 1.3
	예배 무용에 대한 교회 후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3 24 50.7 17.3 2.7
예배 무용의 만족도	예배 무용의 전반적인 작품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7 2.7 38.7 43.3 14.7
	예배 무용의 주제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2 36 46 16
	예배 무용을 통해 감동과 은혜가 충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7 0 29.3 40.7 29.3

첫째, 예배 무용 가치에 대한 인식은 ‘예배 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이다’가 52.7%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가 19.3% 순으로 나타났다. 알지 못한다고 답한 사람도 17.4%도 있었지만, 반수 이상이 예배 무용에 대해 잘 안다고 답을 하였다. 신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그렇다’가 36.7%, ‘매우 그렇다’가 22%로 이 또한 긍정적 답변을 하였다. 예배 무용이 성가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다’가 50.7%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도 20.7%로 매우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는 대답도 ‘그렇다’가 43.3%, ‘매우 그렇다’가 33.3%로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교와 같은 영향력에 관한 질문은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37.3%로 가장 높고 ‘그렇다’가 35.3%로 순으로 나타났다. 찬양의 기능은 인정하지만, 설교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둘째, 예배 무용의 필요도에 관해서는 ‘그렇다’가 41.3%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가 36%, ‘매우 그렇다’가 18%, ‘그렇지 않다’가 4.7% 순으로 답변했다. 예배 무용의 필요도도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도 7명이 있었기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에 예배를 돕는 역할로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가 49.3%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24.7%, ‘매우 그렇다’가 22.7%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대답도 0.7%로 4명이 답변했다.

셋째, 예배 무용의 관심도는 ‘그렇다’가 35.3%, ‘보통이다’가 44.7%, ‘매우 그렇다’가 14.7% 순으로 나타났으며, 후원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은 ‘보통이다’가 56.7%로 가장 높았다. 예배 무용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답변은 ‘보통이다’가 36.7%, ‘그렇지 않다’가 34%로 상대적으로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후원은 ‘보통이다’는 답변이 50.7%로 가장 높고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24%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넷째, 예배 무용의 작품성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다’가 43.3%, ‘보통이다’가 38.7%, ‘매우 그렇다’가 14.7%로 나타났으며, 주제 내용의 만족도도 ‘그렇다’가 46%, ‘보통이다’가 36%, ‘매우 그렇다’가 16%로 순으로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예배 무용을 통해 감동과 은혜가 충만했는지에 관한 답변은 ‘그렇다’가 40.7%, ‘보통이다’와 ‘매우 그렇다’가 같은 29.3%로 나타나 만족도와 더불어 감동하였다고 답변했다.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예배 무용을 유지한 교회는 모든 인식 면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코로나19 기간 중 예배 무용을 부활한 교회

서울 목동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목동 ‘B 교회’는 재적 2,000명 규모이다. 올해 설립 60주년으로 연합예배와 한마음 체육대회, 한마음 찬양대회 등 큰 교회사역을 진행하였다. 현재 출석 인원은 교회학교 포함 1,400명 정도이다. 목회 방침이 젊은 부부 가정 및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미취학 젊은 부부가 100쌍 정도가 되고 청년부 279명, 중고등부 128명이며 영아부터 초등부까지 362명으로 모든 연령이 골고루 분포된 교회이다.

예배 무용팀 경력은 14년 되었고 찬양 담당 목사님이 금요 철야 집회를 만들면서 사람들을 권면하여 위십팀을 세웠다. 비전공자로 구성된 예배 무용팀은 현재 기존 팀원 6명과 코로나19 해제 후 새로운 팀원 4명이 지원하여 10명의 팀원이 예배 무용 사역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권사님팀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없어졌다가 코로나19가 해제되고 다시 권사님팀을 세울 때 기존 인원이 전부 지원하고 새로운 팀원 7명이 추가로 지원하여 권사님팀 2기를 만들었다. 장르는 주로 창작 한국 무용으로 하지만 C.C.D나 현대무용, 그리고 수어나 극을 협업하여 다양하게 올리기도 한다.

이전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현 담임 목사님이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가 발생,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목사님들까지 모두 바뀌어 교회에 예배 무용팀에 대한 정보를 아는 사역자가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서 모임을 할 수 없었던 예배 무용팀은 외부 연습실을 빌려 세워질 날을 기다리며 연습을 시작했다고 한다. 후에 부목사님이 아시고 코로나19 기간에도 교회에서 연습 및 다시 고정으로 3개월에 한 번 금요 철야예배에 서

게 되었고, 온 세대 연합예배 및 새 생명 축제 때는 주일예배 헌금 특무로 세워지고 있다. 또한 교회요청으로 부활절이나 성탄절 등 절기에 교회학교 친구들과 연합하여 예배에 서기도 한다. 금요 철야예배 때만 서다가 주일에도 예배 중에 서게 되고 새로운 팀원도 지원하여 들어오게 되어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활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에도 예배 무용팀이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 무용팀 전원이 사명으로 예배 무용을 연습하며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목회자의 예배방침과 맞아졌을 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의 일반적 특성 및 예배 무용에 관한 인식은 다음 [표 5-6], [표 5-7] 과 같다.

[표 5-6]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빈도(150명)	퍼센트
성별	남	38	25.3
	여	112	74.7
연령	10대	4	2.7
	20대	8	5.3
	30대	23	15.3
	40대	53	35.3
	50대	39	26
	60대	11	7.3
	70대 이상	12	8
신앙 경륜	모태신앙	56	37.3
	10년 미만	14	9.3
	10년 이상	2	1.3
	20년 이상	21	14
	30년 이상	57	38
세례 여부	그렇다	147	98
	아니다	3	2
교회 직분	목회자	6	4
	직분자	94	62.7
	일반성도	50	33.3

교회 출석 여부	그렇다	143	95.3
	아니다	7	4.7
예배 방법	대면 예배	143	95.3
	영상 예배	7	4.7
전 체		150	100.0

[표 5-7]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의 예배 무용 인식

	질 문	구 분	백분율(%)
예 배	예배 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0.1
		그렇지 않다	32.9
		보통이다	34.9
		그렇다	17.4
		매우 그렇다	4.7
무 용	예배 무용이 신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3
		그렇지 않다	0.7
		보통이다	30.9
		그렇다	55.7
		매우 그렇다	11.4
가 치	예배 무용이 성가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7
		그렇지 않다	8.1
		보통이다	23.5
		그렇다	55
		매우 그렇다	10.7
에 관 한	예배 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7
		그렇지 않다	0.7
		보통이다	9.4
		그렇다	56.4
		매우 그렇다	32.9
인 식	예배 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7
		그렇지 않다	0.7
		보통이다	9.4
		그렇다	56.4
		매우 그렇다	32.9

	예배 무용이 설교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21.6 31.8 36.5 8.1
예배 무용의 필요도	예배 시간에 예배 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11.3 44 34.7 8.7
	예배 무용이 교회에 예배를 돕는 역할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7 8 22.7 57.3 11.3
예배 무용의 관심도	예배 무용에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13.3 42 31.3 11.3
	예배 무용 활성화를 위해 후원할 의사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15.3 48.7 28 6.7
	예배 무용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3 36.7 26.7 14 9.3

	예배 무용에 대한 교회 후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7 16.7 58.7 20.7 3.3
예배 무용의 만족 도	예배 무용의 전반적인 작품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7 1.3 32 54 12
	예배 무용의 주제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7 2 31.3 50.7 15.3
	예배 무용을 통해 감동과 은혜가 충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1.3 24 48 25.3

첫째, 예배 무용 가치에 대한 인식은 ‘예배 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이다’가 34.9%로 가장 높았고 ‘그렇지 않다’가 32.9%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도 10.1%로 15명이 대답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배 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다’가 55.7%, ‘보통이다’가 30%로 예배 무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신학적 근거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배 무용이 성가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다’가 55%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23.5%

로 순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도 16명이 답변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는 대답은 ‘그렇다’가 56.4%, ‘매우 그렇다’가 32.9%로 매우 높은 인식을 나타내며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교와 같은 영향력에 관한 질문은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36.5%로 가장 높고 ‘그렇다’가 31.8%로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답변은 ‘23.6%로 35명이 답변했다. 예배 무용에 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지만 설교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나타났다. 예배 무용의 가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예배 무용의 필요도에 관해서는 ‘보통이다’가 44%로 가장 높고 ‘그렇다’가 34.7%, ‘그렇지 않다’가 11.3%, ‘매우 그렇다’가 8.7% 순으로 답변했다. 예배 무용의 필요도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걸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도 19명이 있었기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에 예배를 돕는 역할로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가 57.3%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22.7%, ‘매우 그렇다’가 11.3%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도 8.7%로 13명이 답변했다.

셋째, 예배 무용의 관심도는 ‘보통이다’가 42%, ‘그렇다’가 31.3%. ‘그렇지 않다’가 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후원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은 ‘보통이다’가 48.7%로 가장 높았다. 예배 무용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답변은 ‘그렇지 않다’가 36.7%, ‘보통이다’가 26.7%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3.3%로 예배 무용의 관심도가 70%가 넘는데도 상대적으로 직접 참여하겠다는 의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의 후원은 ‘보통이다’는 답변이 58.7%로 가장 높고 ‘그렇다’라는 답변이 20.7%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넷째, 예배 무용의 작품성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다’가 54%, ‘보통이다’가 32%, ‘매우 그렇다’가 12%로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제 내용의 만족도도 ‘그렇다’가 50.7%, ‘보통이다’가 31.3%, ‘매우 그렇다’가 15.3%로 순으로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예배 무용을 통해 감동과 은혜가 충만했는지의 답변은 ‘그렇다’가 48%, ‘매우 그렇다’가 25.3%와 ‘보통이다’가 24%로 나타나 만족도와 더불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다.

코로나19 기간 예배 무용을 부활한 교회는 대체로 모든 인식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특히 예배 무용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예배 무용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코로나19 해제 후 예배 무용을 부활한 교회

일산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 제일 노회(합동 측) ‘C 교회’는 코로나19가 끝난 후 예배 무용이 부활한 교회이다. 재적 2,000명 규모로 매주 출석 인원은 600명 정도이다.

예배 무용팀은 지도자 기준 10년 되었고 구성원은 7명으로 비전공자들이 지원하여 팀을 구성하게 되었다. 2023년 올해 교회요청으로 새 생명 축제 2회,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절, 창립 기념 예배 주일에 예배 무용으로 섬겼으며, 주로 대예배 헌금 특무와 추수감사절 때 섬긴다. 그리고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 오후 예배 발표전 오프닝으로 섬길 때도 있다.

예배 무용의 주제는 주로 절기에 맞는 찬양으로 구성하고 무용의 장르는 주로 창작 한국 무용으로 하지만 가끔 현대와 수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000년~2022년까지 코로나19로 모임을 할 수 없어 쉬었다가 22년 추수감사절 부서별 발표회를 시작으로 다시 모임을 재기하여 2023년부터 다시 예배에 서기 시작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 내 사역의 변화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예배 무용팀 구성원이 6명이었으나 코로나19 해제 후 지도자가 생기면서 7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팀원은 대부분 교체되었고 새로운 팀원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의욕이 돋보인다. 정기적인 연습 시간뿐 아니라 개인 연습을 하고 재정적인 변화는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개인적인 찬조가 들어왔다. 자체 회비와 소정의 교회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목회자의 변화는 예배 흐름에 맞추기 위해 곡 선정에 좀 더 엄격해진 것이다. 이전보다 더 활성화가 된 것은 아

니지만 중단했다 다시 예배 무용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의 기대가 커진 점이 있어 좀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노력한다는 지도자의 다짐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부활한 교회의 일반적 특성과 예배 무용에 관한 인식은 다음 [표 5-8], [표 5-9] 와 같다.

[표 5-8]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빈도(100명)	퍼센트
성별	남	18	18
	여	82	82
연령	10대	5	5
	20대	8	8
	30대	5	5
	40대	26	26
	50대	41	41
	60대	14	14
	70대 이상	1	1
신앙 경륜	모태신앙	41	41
	10년 미만	8	8
	10년 이상	5	5
	20년 이상	14	14
	30년 이상	32	32
세례 여부	그렇다	97	99.3
	아니다	3	0.7
교회 직분	목회자	3	3
	직분자	59	59
	일반성도	38	38
교회 출석 여부	그렇다	98	98
	아니다	2	2
예배 방법	대면 예배	98	98
	영상 예배	2	2
전 체		100	100.0

[표 5-9] 코로나19 해제 후 예배 무용 부활한 교회의 예배 무용 인식

	질 문	구 분	백분율(%)
예 배 무 용	예배 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7
		그렇지 않다	24
		보통이다	48
		그렇다	18
		매우 그렇다	3
가 치 에 관 한 인 식	예배 무용이 신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4
		보통이다	28
		그렇다	53
		매우 그렇다	15
가 치 에 관 한 인 식	예배 무용이 성가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12
		보통이다	24
		그렇다	45
		매우 그렇다	18
가 치 에 관 한 인 식	예배 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7
		그렇다	52
		매우 그렇다	38
가 치 에 관 한 인 식	예배 무용이 설교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6
		그렇지 않다	19
		보통이다	34
		그렇다	31
		매우 그렇다	10

예배 무용의 필요도	예배 시간에 예배 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13 37 43 7
	예배 무용이 교회에 예배를 돕는 역할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0 4 31 52 13
예배 무용의 관심도	예배 무용에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13 36 35 14
	예배 무용 활성화를 위해 후원할 의사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17 40 34 7
	예배 무용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24 35 21 7
	예배 무용에 대한 교회 후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28 50 16 1

예 배	예배 무용의 전반적인 작품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27
		그렇다	58
		매우 그렇다	12
무 용 의	예배 무용의 주제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1
		보통이다	31
		그렇다	51
		매우 그렇다	16
만 족 도	예배 무용을 통해 감동과 은혜가 충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21
		그렇다	46
		매우 그렇다	30

첫째, 예배 무용 가치에 대한 인식은 ‘예배 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이다’가 48%로 가장 높았고 ‘그렇지 않다’가 24%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도 7%로 7명이 대답했다. 긍정적인 답변이 71.7%로 예배 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나타났다. 신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렇다’가 53%, ‘보통이다’가 28%로 신학적 근거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예배 무용이 성가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다’가 45%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24%로 순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하지만 부정적인 답변도 13명이 답변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는 대답은 ‘그렇다’가 52%, ‘매우 그렇다’가 38%로 매우 높은 인식을 나타내며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설교와 같은 영향력에 관한 질문은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34%로 가장 높고 ‘그렇다’가 31%로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답변은 25%로 25명이 답변했다. 예배 무용에 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지만 설교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상대적으로 낮은 걸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배 무용의 가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예배 무용의 필요도에 관해서는 ‘그렇다’가 43%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가 37%, ‘그렇지 않다’가 13%, ‘매우 그렇다’가 7% 순으로 답변했다. 예배 무용의 필요도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걸로 나타났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도 13명이 있었기에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개선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에 예배를 돕는 역할로 필요한지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가 52%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다’가 31%, ‘매우 그렇다’가 13%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과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도 4%로 4명이 답변했다.

셋째, 예배 무용의 관심도는 ‘보통이다’가 36%, ‘그렇다’가 35%, ‘매우 그렇다’가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후원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은 ‘보통이다’가 40%로 가장 높았다. 예배 무용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보통이다’가 35%, ‘그렇지 않다’가 24%로 나타났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3%로 나타났다. 교회의 후원은 ‘보통이다’는 답변이 50%로 가장 높고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28%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넷째, 예배 무용의 작품성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다’가 58%, ‘보통이다’가 27%, ‘매우 그렇다’가 12%로 높게 나타났으며, 주제 내용의 만족도도 ‘그렇다’가 51%, ‘보통이다’가 31%, ‘매우 그렇다’가 16%로 순으로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예배 무용을 통해 감동과 은혜가 충만했는지의 답변은 ‘그렇다’가 46%, ‘매우 그렇다’가 30%와 ‘보통이다’가 21%로 나타나 만족도와 더불어 감동하였다고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해제 후 예배 무용이 부활한 교회는 대체로 모든 인식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특히 예배 무용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4)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예배 무용을 중단한 교회

일산 마두동에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D 교회'는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예배 무용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교회이다. 재적은 3,000명이고 출석 인원은 2,000명으로 추정한다. 고신 측 목사님이셨던 담임목사님이 예배 무용을 좋아하지 않고 말씀 위주로 행사를 지향하지 않는 예배형식의 교회이다. 특히 특별한 절기에 특별한 순서가 필요하면 고전적인 성가대 찬양을 선호하고 특히 예배에 세워지는 사역자는 전문팀이 서야 한다는 방침으로 성가대에도 전공자들이 많고 예배 무용팀도 전공자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교회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예배 무용팀이 활발하게 사역하였고 특별한 행사와 절기가 있으면 교회의 요청이 있기 전에 예배에 서겠다고 요청하여 1년에 4~5번 정도 예배 중에 특무로 세워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교회와 예배 무용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예배 무용팀에 대한 교회의 지원 및 무관심에 대한 불만으로, 7명이었던 구성원은 60주년 행사를 끝으로 세 명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예배 무용이 중단되어 지금까지 부활하지 않고 있다.

중단되기 전 새로이 지도자가 세워지며 연간 계획으로 교회 측에 송구영신 예배, 부활주일, 새 생명 축제 때 예배 무용을 세워주라고 요청하였으나, 교회에서는 별도의 요청이 없어 현재까지 예배 무용팀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다. 최근 송구영신 예배 때 예배 무용 요청이 있어 외부 팀과 함께 예배에 올린 후 만족도가 높아져 교회 팀보다는 외부 팀을 초청하여 예배에 올리면 좋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현재 새로이 예배 무용팀을 꾸려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기대할 것은 지도자가 예배 무용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팀을 세울 계획을 하고 있다. 50대 이상의 영성과 인성을 겸비한 팀원을 찾고 있고 내면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팀원으로 구성하여 교회와도 불화 없이 소통하고 예배를 돕는 역할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지도자의 바람이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부활한 교회의 일반적 특성과 예배 무용에 관한 인식은 다음 [표 5-10], [표 5-11] 과 같다.

[표 5-10]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		빈도(72명)	퍼센트
성별	남	18	25
	여	52	75
연령	10대	1	1.4
	20대	0	0
	30대	0	0
	40대	10	13.9
	50대	42	58.3
	60대	16	22.2
	70대 이상	3	4.2
신앙 경륜	모태신앙	10	13.9
	10년 미만	3	4.2
	10년 이상	5	6.9
	20년 이상	10	13.9
	30년 이상	44	61.1
세례 여부	그렇다	100	100
	아니다	0	0
교회 직분	목회자	1	1.4
	직분자	47	65.3
	일반성도	24	33.3
교회 출석 여부	그렇다	69	95.8
	아니다	3	4.2
예배 방법	대면 예배	67	93.1
	영상 예배	5	6.9
전 체		72	100.0

[표 5-11]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예배 무용 중단한 교회 예배 무용 인식

질 문	구 분	백분율(%)
예배 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1.1
	그렇지 않다	38.9
	보통이다	40.3
	그렇다	6.9
	매우 그렇다	2.8

예배	예배 무용이 신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4
		그렇지 않다	6.9
		보통이다	44.4
		그렇다	43.1
		매우 그렇다	4.2
무용	예배 무용이 성가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2.8
		그렇지 않다	23.9
		보통이다	35.2
		그렇다	35.2
		매우 그렇다	2.8
가치	예배 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4
		그렇지 않다	0
		보통이다	29.2
		그렇다	54.2
		매우 그렇다	15.3
인식	예배 무용이 설교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8.3
		그렇지 않다	19.4
		보통이다	50
		그렇다	20.8
		매우 그렇다	1.4
예배 무용의	예배 시간에 예배 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4
		그렇지 않다	23.6
		보통이다	58.3
		그렇다	12.5
		매우 그렇다	4.2
필요 도	예배 무용이 교회에 예배를 돕는 역할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4
		그렇지 않다	13.9
		보통이다	44.4
		그렇다	33.3
		매우 그렇다	6.9

	예배 무용에 관심이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6.9
		그렇지 않다	12.5
		보통이다	56.9
		그렇다	19.4
		매우 그렇다	4.2
예배 무용의 관심도	예배 무용 활성화를 위해 후원할 의사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4
		그렇지 않다	26.8
		보통이다	54.9
		그렇다	16.9
		매우 그렇다	0
	예배 무용에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18.1
		그렇지 않다	45.8
		보통이다	20.8
		그렇다	15.3
		매우 그렇다	0
	예배 무용에 대한 교회 후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4.2
		그렇지 않다	59.7
		보통이다	31.9
		그렇다	2.8
		매우 그렇다	1.4
예배 무용의 만족도	예배 무용의 전반적인 작품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5.6
		보통이다	48.6
		그렇다	44.4
		매우 그렇다	1.4
	예배 무용의 주제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6.9
		보통이다	58.3
		그렇다	30.6
		매우 그렇다	4.2

만 족 도	예배 무용을 통해 감동과 은혜가 충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0
		그렇지 않다	5.6
		보통이다	47.2
		그렇다	43.1
		매우 그렇다	4.2

첫째, 예배 무용 가치에 대한 인식은 ‘예배 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보통이다’가 48%로 가장 높았고 ‘그렇지 않다’가 38.9% 순으로 나타났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답도 11.1%로 예배 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신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보통이다’가 44.4%, ‘그렇다’가 43.1%로 신학적 근거가 있다고 인식했다. 예배 무용이 성가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보통이다’와 ‘그렇다’가 35.2%로 같았고 ‘그렇지 않다’가 23.9%로 순으로 나타났다. 성가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반수 이상이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람도 26.7%로 19명이 답변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는 대답은 ‘그렇다’가 54.2%, ‘보통이다’가 29.2%, ‘매우 그렇다’가 15.3%로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설교와 같은 영향력에 관한 질문은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50%로 가장 높고 ‘그렇다’가 20%로 순으로 나타났다. 찬양의 기능은 인정하지만, 설교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로 알 수 있었다.

둘째, 예배 무용의 필요도에 관해서는 ‘보통이다’가 58.3%로 가장 높고 ‘그렇지 않다’가 23.6%, ‘그렇다’가 12.5%, ‘그렇다’가 4.2% 순으로 답변했다. 예배 무용의 필요도는 반수 이상이 ‘보통이다’고 답변하였으며 ‘그렇다’라고 답변한 사람은 12명에 불과하다.

교회에 예배를 돕는 역할로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가 44.4%로 가장 높았고 ‘그렇다’가 33.3%, ‘그렇지 않다’가 13.9%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 부정적인 인식은 15.3%로 11명이 답변했다.

셋째, 예배 무용의 관심도는 ‘보통이다’가 56.9%, ‘그렇다’가 19.4%, ‘그렇지 않다’가 12.5% 순으로 나타났으며, 후원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은

‘보통이다’가 54.9%로 가장 높았다. 예배 무용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답변은 ‘그렇지 않다’가 45.8%, ‘보통이다’가 20.8%로 예배 무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약했다. 교회의 후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59.7%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31.9%로 그다음으로 높았다.

넷째, 예배 무용의 작품성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48.6%, ‘그렇다’가 44.4%, ‘그렇지 않다’가 5.6%로 나타났으며, 주제 내용의 만족도도 ‘보통이다’가 58.3%, ‘그렇다’가 30.6%, ‘그렇지 않다’가 6.9%로 순으로 나타났다. 예배 무용을 통해 감동과 은혜가 충만했는지에 관한 답변은 ‘보통이다’가 47.2%, ‘그렇다’가 43.1%, ‘그렇지 않다’가 5.6%로의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예배 무용을 중단한 교회는 모든 응답에 가장 높은 순위가 ‘보통이다’의 답변으로 50%대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답에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답이 순위 앞에 있었다. 인식 중 ‘보통이다’가 높은 순위가 아니었던 답변은 교회 후원의 인식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높았다. 예배 무용의 인식이 보통의 수준으로, 긍정적인 인식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제 4 절 대표적인 4개 교회의 인식도 차이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무용 실행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의 가치 인식, 필요도, 관심도 및 만족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 기간에 꾸준히 예배 무용을 유지한 교회를 ‘A교회’, 코로나19 기간 중 예배 무용 부활한 교회를 ‘B교회’, 코로나19 해제 후 예배 무용 부활한 교회를 ‘C교회’ 그리고 코로나19 해제 이후에도 예배 무용 중단한 교회를 ‘D교회’라 칭하여 표를 작성 후 분석하였다.⁷⁹⁾

⁷⁹⁾ 모든 답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 답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4개의 교회가 응답한 빈도수가 다르므로 앞의 연구 방법 결과에서 분석을 통한 가설검증은 별도로 진행하였고 응답한 이들을 통한 인식 차이를 별도로 진행하였다.

1) 4개 교회의 예배 무용 인식에 대한 차이

[표 5-12] 4개 교회의 예배 무용 가치에 대한 인식 차이

인식의 유형	응답 내용	백분율(%)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예배 무용의 신학적 근거	전혀 그렇지 않다	0	1.3	0	1.4
	그렇지 않다	3.3	0.7	4	6.9
	보통이다	38	30.9	28	44.4
	그렇다	36.7	55.7	53	43.1
	매우 그렇다	22	11.4	15	4.2
성가대와 같은 기능	전혀 그렇지 않다	0	2.7	1	2.8
	그렇지 않다	1	8.1	12	23.9
	보통이다	24.7	23.5	24	35.2
	그렇다	50.7	55	45	35.2
	매우 그렇다	20.7	10.7	18	2.8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	전혀 그렇지 않다	0.7	0.7	0	1.4
	그렇지 않다	0.7	0.7	3	0
	보통이다	22	9.4	7	29.2
	그렇다	43.3	56.4	52	54.2
	매우 그렇다	33.3	32.9	38	15.3
설교와 같은 영향력	전혀 그렇지 않다	0.7	2	6	8.3
	그렇지 않다	8.7	21.6	19	19.4
	보통이다	37.3	31.8	34	50
	그렇다	35.3	36.5	31	20.8
	매우 그렇다	18	8.1	10	1.4

첫째, 예배 무용이 신학적 근거가 있는지에 관한 인식은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68%,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67.1%,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58.7%,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47.3% 순으로 나타났다. 예배 무용을 중단한 교회를 제외한 다른 교회는 반

수 이상이 신학적 근거가 있다고 답변하고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둘째, 예배 무용이 성가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지에 관한 인식은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71.4%,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65.7%,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63%,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38% 순으로 나타났다. 예배 무용을 꾸준히 실행한 교회일수록 성가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는 38%로 매우 낮은 인식을 하고 있다.

셋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인식은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90%,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89.3%, 코로나19 기간 중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76.6%,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69.5% 순으로 나타났다. 예배 무용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와 20.5% 차이가 나고 순위가 낮은 코로나19 해제 후 중단한 교회와도 10.1%의 차이밖에 나지 않아 이러한 인식이 나타난 원인을 찾아 개선하면 높아지리라 예상된다.

넷째, 예배 무용이 설교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지에 관한 인식은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53.3%,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44.6%,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41%,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22.2% 순으로 나타났다. 예배 무용의 가치는 인식하지만, 예배 무용이 설교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그나마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반수 이상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으며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는 22.2%로 매우 낮은 인식을 나타냈다.

4개의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인식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 변량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 무용을 꾸준히 유지한 교회는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도가 3.71점으로 나타나,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기간이 끝난 후 부활한 교회가 3.55점, 중단했다가 코로나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3.52점, 예배 무용이 있었으나 계속 중단한 교회가 3.1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12.544$,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다음 [표 5-13] 과 같다.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 1,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13]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인식도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예배 무용 인식도	꾸준히 유지한 교회(a)	150	3.71	0.668	12.544 ***	0.000	d<b,c<a
	중단했다가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b)	150	3.52	0.638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c)	100	3.55	0.637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계속 중단한 교회(d)	72	3.15	0.590			
	전체	472	3.53	0.664			

***p<.001

2) 4개 교회의 예배 무용 필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

[표 5-14] 4개 교회의 예배 무용 필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

인식의 유형	응답 내용	백분율(%)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예배 무용의 필요성	전혀 그렇지 않다	0	1.3	0	1.4
	그렇지 않다	4.7	11.3	13	23.6
	보통이다	36	44	37	58.3
	그렇다	41.3	34.7	43	12.5
	매우 그렇다	18	8.7	7	4.2

예배를 돕는 역할	전혀 그렇지 않다	0.7	0.7	0	1.4
	그렇지 않다	2.7	8	4	13.9
	보통이다	24.7	22.7	31	44.4
	그렇다	49.3	57.3	52	33.3
	매우 그렇다	22.7	11.3	13	6.9

첫째, 예배 무용의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50%,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43.4%,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43.1%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16.7%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중단한 교회의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 교회가 필요성에 관한 인식은 긍정적인 답변 외에도 ‘보통이다’는 답변이 높았다.

둘째, 예배 무용이 예배를 돕는 역할에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은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72%, 코로나19 기간 부활한 교회가 68.6%,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65%, 그리고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40.2% 순으로 나타났다. 앞의 세 교회는 예배를 돕는 역할에 관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지만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는 40.2%로 반수 이하의 낮은 응답을 하였다.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필요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 변량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 무용을 꾸준히 유지한 교회는 예배 무용에 대한 필요도가 3.84점으로 나타나, 예배 무용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기간이 끝난 후 부활한 교회가 3.63점, 중단했다가 코로나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3.59점, 예배 무용이 있었으나 계속 중단한 교회가 3.19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12.366$,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다음 [표 5-15] 와 같다.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 2,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필요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15]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필요도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예배 무용 필요도	꾸준히 유지한 교회(a)	150	3.84	0.755	12.366 ***	0.000	d<b,c<a
	중단했다가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b)	150	3.59	0.724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c)	100	3.63	0.721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계속 중단한 교회(d)	72	3.19	0.747			
	전체	472	3.62	0.763			

***p<.001

3) 4개 교회의 예배 무용 관심도에 대한 인식 차이

[표 5-16] 4개 교회의 예배 무용 관심도에 대한 인식 차이

인식의 유형	응답 내용	백분율(%)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예배 무용에 관심도	전혀 그렇지 않다	0	2	2	6.9
	그렇지 않다	5.3	13.3	13	12.5
	보통이다	44.7	42	36	56.9
	그렇다	35.3	31.3	35	19.4
	매우 그렇다	14.7	11.3	14	4.2
예배 무용 활성화를 위해 후원할 의사 유무	전혀 그렇지 않다	0	1.3	2	1.4
	그렇지 않다	10.7	15.3	17	26.8
	보통이다	56.7	48.7	40	54.9
	그렇다	26	28	34	16.9
	매우 그렇다	6.7	6.7	7	0

예배 무용에 참여할 의사 유무	전혀 그렇지 않다	8.7	13.3	13	18.1
	그렇지 않다	34	36.7	24	45.8
	보통이다	36.7	26.7	35	20.8
	그렇다	19.3	14	21	15.3
	매우 그렇다	1.3	9.3	7	0
교회에서의 후원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5.3	0.7	5	4.2
	그렇지 않다	24	16.7	28	59.7
	보통이다	50.7	58.7	50	31.9
	그렇다	17.3	20.7	16	2.8
	매우 그렇다	2.7	3.3	1	1.4

첫째, 예배 무용의 관심도의 인식은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50%,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49%,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42.6%,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23.6% 순으로 나타났다. 4개의 교회가 ‘보통이다’는 답변이 높은 순위에 있었고 꾸준히 유지한 교회의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둘째, 예배 무용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인식은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41%,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34.7%,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32.7%, 그리고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16.9%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도 4개의 교회가 ‘보통이다’는 답변이 높은 순위에 있었고 다른 타 인식보다 후원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배 무용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한 인식은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28%,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23.3%, 코로나19 기간 중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20.6%,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15.3% 순으로 나타났다. 인식과 관심도에 비해 참여도의 인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교회가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답변이 높은 편이고 그 중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의 부정적인 답변이 63.9%로 가장 높게 나왔다.

넷째, 교회에서 후원이 잘되고 있는지에 관한 인식은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24%,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20%,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17%, 그리고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4.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질문 또한 ‘보통이다’는 응답이 50%대이고 코로나 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는 63.9%의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 교회 대부분이 예배 무용팀에 후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관심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 변량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 무용을 꾸준히 유지한 교회는 예배 무용에 대한 관심도가 3.12점으로 나타나, 예배 무용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기간이 끝난 후 부활한 교회가 3.10점, 중단했다가 코로나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3.10점, 그리고 예배 무용이 있었으나 계속 중단한 교회가 2.65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10.359$,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표 5-17] 과 같다.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 3,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관심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17]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관심도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예배 무용 관심도	꾸준히 유지한 교회(a)	150	3.12	0.583	10.359 ***	0.000	d<a,b,c
	중단했다가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b)	150	3.10	0.679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c)	100	3.10	0.718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계속 중단한 교회(d)	72	2.65	0.556			
	전체	472	3.03	0.660			

*** $p<.001$

4) 4개 교회의 예배 무용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표 5-18] 4개 교회의 예배 무용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인식의 유형	응답 내용	백분율(%)			
		A교회	B교회	C교회	D교회
작품성에 대한 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0.7	0.7	0	0
	그렇지 않다	2.7	1.3	3	5.6
	보통이다	38.7	32	27	48.6
	그렇다	43.3	54	58	44.4
	매우 그렇다	14.7	12	12	1.4
주제 내용에 대한 만족	전혀 그렇지 않다	0	0.7	1	0
	그렇지 않다	2	2	1	6.9
	보통이다	36	31.3	31	58.3
	그렇다	46	50.7	51	30.6
	매우 그렇다	16	15.3	16	4.2
감동과 은혜가 충만했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0.7	1.3	0	0
	그렇지 않다.	0	1.3	3	5.6
	보통이다.	29.3	24	21	47.2
	그렇다.	40.7	48	46	43.1
	매우 그렇다.	29.3	25.3	30	4.2

첫째, 예배 무용의 전반적인 작품성에 만족하는지에 관한 인식은 코로나 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70%,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66%,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58%, 그리고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45.8% 순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도 높은 순위에 있으며 대부분 작품성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둘째, 예배 무용의 주제와 내용에 만족하는지에 관한 인식은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67%,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66%,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62%,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34.6%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예배 무용을 통해 감동과 은혜가 충만했는지에 관한 인식은 코로나 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76%,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73.3%,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70%, 그리고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47.3% 순으로 나타났다.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 변량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 기간에도 예배 무용을 꾸준히 유지한 교회는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가 3.84점, 코로나 기간이 끝난 후 부활한 교회가 3.84점으로 나타나,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단했다가 코로나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3.79점, 예배 무용이 있었으나 계속 중단한 교회가 3.38점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F=9.595$,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표 5-19] 와 같다. 연구가설 4,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표 5-19]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만족도 차이

		N	평균	표준 편차	F	p	Scheffe
예배 무용 만족도	꾸준히 유지한 교회(a)	150	3.84	0.689	9.595 ***	0.000	d<a,b,c
	중단했다가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b)	150	3.79	0.646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c)	100	3.84	0.645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계속 중단한 교회(d)	72	3.38	0.553			
	전체	472	3.76	0.664			

*** $p<.001$

지금까지 교회 무용 실행유형이 다른 4개 교회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와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비슷한 인식의 응답과 수치를 나타냈고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미비하게 순위가 높았다. 코로나19 기간 중 꾸준히 유지한 교회도 후원 여부와 참여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 외에는 긍정적인 응답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와 기간 중 부활한 교회, 그리고 해제 후 부활한 교회는 예배 무용에 관한 인식 및 필요도, 관심도와 만족도가 모두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예배 무용을 중단한 교회는 다른 타 실행유형보다 현저하게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목회자의 방침이 다르지만,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회는 상황이 열리고 쓰임을 받게 되며 예배 무용 인식 또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5)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가 예배 무용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예배 무용 필요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20] 과 같다.

[표 5-20]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가 예배 무용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예배 무용 필요도						
	B	SE	β	t	p	공차	VIF
(상수)	0.251	0.119		2.109	0.035		
예배 무용 인식도	0.717	0.042	0.624	17.018***	0.000	0.574	1.743
예배 무용 관심도	0.275	0.042	0.238	6.498***	0.000	0.574	1.743
F(p)=414.931***, p=001, R ² =0.639, D-W=2.055							

***p<.001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가 예배 무용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63.9%로 나타났으며,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F=414.931, $p < .001$) 모형이 적합하였다.

분석 결과 예배 무용 인식도($\beta = 0.624$, $p < .001$)는 예배 무용 필요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배 무용 관심도($\beta = 0.238$, $p < .001$)는 예배 무용 필요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가설 5번에 대한 예배 무용 인식도가 긍정적일수록, 예배 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예배 무용 필요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가 예배 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예배 무용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21] 과 같다.

[표 5-21]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가 예배 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예배 무용 만족도						공차	VIF
	B	SE	β	t	p			
(상수)	1.085	0.118		9.195	0.000			
예배 무용 인식도	0.569	0.042	0.568	13.608***	0.000	0.574	1.743	
예배 무용 관심도	0.218	0.042	0.217	5.198***	0.000	0.574	1.743	

F(p)=265.351***, $p=001$, $R^2=0.531$, D-W=2.092

*** $p < .001$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가 예배 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53.1%로 나타났으며,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F=265.351, p<.001$) 모형이 적합하였다.

분석 결과 예배 무용 인식도($\beta=0.568, p<.001$)는 예배 무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배 무용 관심도($\beta=0.217, p<.001$)는 예배 무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가설 6번에 대한 예배 무용 인식도가 긍정적일수록, 예배 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예배 무용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7) 예배 무용 필요도가 예배 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예배 무용 필요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예배 무용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5-22] 와 같다.

[표 5-22] 예배 무용 필요도가 예배 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	예배 무용 만족도						
	B	SE	β	t	p	공차	VIF
(상수)	1.348	0.096		14.10 3	0.000		
예배 무용 필요도	0.666	0.026	0.765	25.73 4***	0.000	1.000	1.000
$F(p)=662.252***, p=001, R^2=0.585, D-W=1.943$							

*** $p<.001$

예배 무용 필요도가 예배 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58.5%로 나타났으며,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F=662.252, p<.001$) 모형이 적합하였다.

분석 결과 예배 무용 필요도($\beta=0.765, p<.001$)는 예배 무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가설 7번에 대한 예배 무용 필요도가 높을수록 예배 무용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제 5 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예배 무용 인식의 차이

연구 문제 6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인식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이전의 인식은 2010년대를 기준으로 선택하였고 코로나19 이후의 수치는 4개의 교회의 답변을 평균하여 연구하였다. 이전과 이후의 같은 질문을 선택하여 예배 무용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1) 예배 무용에 대한 가치 인식 차이 분석

[표 5-23] 예배 무용에 대한 가치 인식 차이 분석

인식의 유형	응답 내용	%	
		2010 년대	현재
예배 무용이 성가대와 흡사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65.3	62.8
	보통이다	0	25.7
	아니다	4.1	11.5
	모르겠다	30.6	0
	기타	0	0
예배 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	81.6	82.4
	보통이다	0	15.9
	아니다	2.0	1.7
	모르겠다	16.3	0
	기타	0	0

예배 무용이 성가대와 흡사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는 인식 65.3%에서 62.8%로 낮아졌으며 아니라는 답변도 4.1%에서 11.5%로 높아져 반수 이상이 성가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이전보다 예배 무용의 가치를 성가대와 같은 기능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보통이다'라는 답변까지 포함한다면 88.5%로 높은 편에 속한다. 예배 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는 질문에도 '그렇다'가 81.6%에서 82.4%로 미비한 상승이 있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과 성가대와 흡사한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예배 무용 필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표 5-24] 예배 무용 필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인식의 유형	응답 내용	%	
		2010 년대	현재
교회 내 예배 무용이 있기를 희망한다.	그렇다	86	45.8
	보통이다	0	42.2
	아니다	2.3	12
	관심 없다	11.6	0
	기타	0	0

교회 내 예배 무용이 있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이 86%에서 88%로 이전과 같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2.3%에서 12%로 높아졌다. 희망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오게 되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예배 내 필요도의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3) 예배 무용 관심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표 5-25] 예배 무용 관심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인식의 유형	응답 내용	%	
		2010 년대	현재
예배 무용에 관한 관심도	관심이 있다	61.8	43.5
	보통이다	0	43.9
	관심이 없다	38.2	12.7
	모르겠다	0	0

예배 무용에 관한 관심도는 현재 ‘보통이다’는 답변을 ‘관심이 있다’라는 답변으로 인식할 때 61.8%에서 87.4로 매우 높아졌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교회 내 예배 무용이 있기를 희망하면서도 관심은 현저하게 낮았었는데 현재는 필요도에 맞춰 관심도도 높아졌다. 관심이 없다는 답변도 38.2%에서 12.7%로 25.5%나 낮아져 예배 무용에 관한 관심도가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예배 무용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표 5-26] 예배 무용 만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 분석

인식의 유형	응답 내용	%	
		2010 년대	현재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	만족한다	66.7	61.2
	보통이다	0	35.6
	만족하지 않다	5.6	3.2
	모르겠다	16.7	0
	기타	11.1	0

예배 무용을 통한 마음의 변화	감동하였다	83.3	68.9
	보통이다	16.7	28.6
	아쉬웠다	0	2.5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라는 답변이 66.7%에서 61.2%로 낮아졌으나, 코로나19 이전에는 없던 ‘보통이다’는 답변이 현재 35.6%가 있고, ‘만족하지 않다’라는 답변도 5.6%에서 3.2%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이전보다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배 무용을 통해 ‘감동했다’라는 답변이 83.3%에서 68.9%로 낮아졌고, 아쉬웠다는 답변도 2.5%가 생겨 만족도에 비해 감동이 낮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만족한다’라는 인식에서 ‘마음의 감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토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 예배 무용 활성화 시 장애 요소 인식 및 개선점 차이 분석

[표 5-27] 예배 무용 활성화 시 장애 요소 및 개선점 인식 차이 분석

코로나19 이전 인식(2010년대)		
인식의 유형	응답 내용	%
예배 무용의 활성화 시 가장 큰 장애 요소	중요성 인식	51
	후원의 부족	18
	전문 인력의 부족	17
	모르겠다.	7.5
	기타	6.5
예배 무용에 담긴 바라는 내용	성경 내용	50
	체험 이야기	16.7
	경배와 찬양 내용	26
	모르겠다.	0
	기타	7.3

코로나19 이후 인식		
예배 무용의 발전·성장에 가장 큰 장애 요소	한국교회가 선교와 예배에 있어서 예배 무용의 중요성 인식의 부재	42.1
	무용의 전문 문화 사역에 대한 독자적 필요성 인식의 부재	15.9
	성경을 주제로 다룬 수준 높은 작품 수의 미흡	15.4
	성도들의 무용에 대한 부담감	18.9
	전문 무용인들의 부족	7.8
예배 무용의 발전을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	테크닉, 안무에 관한 연구로 전문성 확립	20
	의상, 분장, 소품 등 공연에 필요한 부분의 보완	5.1
	재즈, 힙합 등 다양한 장르 도입에 있어 나이별 차이에 대한 고려	13.6
	더 깊은 기독교 가치관과 성경을 주제로 한 내용	61.4

예배 무용의 활성화 시 장애 요소는 2010년대 51%, 현재 58%로 코로나19 이전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예배 무용의 중요성 인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전에도 후원의 부족과 전문 인력의 부족이 18%, 17%를 차지하며

중요성 인식의 부족 다음 순서였는데, 현재는 전문 무용인들의 부족은 7.8% 이고 성도들의 무용에 대한 부담감이 18.9%, 성경을 주제로 다룬 수준 높은 작품 수의 미흡이 15.4%로 나타나, 보여주기식의 작품보다 무용에 메시지가 있는 작품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영성과 안무의 전문성을 높여 주제를 표현하고자 하는 능력을 키우고, 성도들의 무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감동할 수 있는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예배 무용에 관한 가치 인식 및 필요도, 관심도와 만족도,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가 되는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인식비교분석을 한 결과, 코로나19 이전보다 이후가 미비하게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예배 무용에 대한 필요도도 2% 상승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로 성가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관심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25.6%의 차이가 나며 많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예배 무용이 중단되고 인식이 낮아졌을 것이라 예상하였는데 코로나19 기간에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있고 코로나19 해제 후 2023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예배 무용을 올려드리고 성도들이 경험하다 보니 긍정적으로 인식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분위기가 많이 침체하였는데, 코로나19가 해제되고 예배 무용이 부활하며 교회의 회복을 위해 성도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으나 만족도에 비해 마음에 감동하였다는 인식이 낮아져, 관심과 만족도에 그치지 않고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처럼 감동까지 전할 수 있는 예배 무용이 되도록 개선하였으면 한다.

이를 위해 예배 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 모두 예배 무용의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 개선점은 성경과 기독교 내용을 예술성 있게 표현하여 전달하는 것이 59.3%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테크닉, 안무에 관한 전문성 확립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문적인 표현을 통해 전할 수만 있다면 성가대처럼 예배 안에 고정적으로 세워지는 역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신 할 수 있는 감동까지 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제 6 장 논의 및 가설검증

본 연구는 예배 무용의 실행 시기에 따라 인식도에 차이가 있을 거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행 시기에 따른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네 가지 유형의 교회를 선정하여 인식의 차이는 유의미한지 비교분석을 하기 위한 양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 및 가설검증은 다음과 같다.

제 1 절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인식도 차이

본 연구에서는 실행 시기가 다른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1을 제시하였다.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해 일원 변량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12.544$,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예배 무용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와 중단했다가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 순으로 인식도가 높았으며,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계속 중단한 교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배 무용 실행 시기에 따라 인식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1은 채택되었다.

연구전에는 코로나19 기간 중 예배 무용을 부활한 교회가 해제 후 부활한 교회보다 인식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0.03점의 미미한 차이지만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더 높았다. 이는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의 설문한 빈도수가 50명이 적고, 설문을 진행한 시기가 대예배 때 예배 무용을 올린 후 설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는 금요 철야 때 예배 무용을 올리는 팀으로 2023년도가 되어서야 새 생명 축제와 연합예배 때 대예배에 올린 교회였다. 이는 가설검증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대예배 때는 수요일예배나 금요 철야보다 참석인원이 많아 예배 무용을 본 경험과 인원이 더 많고 경험을 통해 인식도가 높아졌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배 무용이 이루어지는 교회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의 인식도를 연구한 변현정(1995)의 논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기독교와 무용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97.1%,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가 82.4%로, 예배 무용 실행교회의 긍정적 답변을 통해 본 연구 결과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⁸⁰⁾ 즉 예배 무용 실행 시기에 따라 인식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 2 절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필요도 인식 차이

본 연구에서는 실행 시기가 다른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필요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2를 제시하였다.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해 일원 변량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12.366$,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예배 무용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예배 무용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와 중단했다가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 순으로 필요도가 높았으며,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계속 중단한 교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배 무용 실행 시기에 따라 필요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 또한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보다 0.04점의 차이로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높은 점수가 나와 항목별 백분율을 확인하니 예배를 돕는 역할의 필요도에서 부정적인 답변이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4.7% 높았다. 원인을 분석하면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는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까지 설교 위주의 예배형식을 강조한 교회로, 20~40대의 나이대도 많지만 60대 이상의 형식을 중요시하는 교회였다. 반면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는 유년부 워십팀을 신설하여 대예배에 올려드리고 예배의 분위기를 높여, 교회학교 친구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을 준다는 인식을 통해 필요성의 인식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⁸⁰⁾ 변현정. 전계논문. pp.37~57.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는 설교 위주 예배형식이 같은 조건임에도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와 필요성은 26.7%, 예배를 돕는 역할의 인식은 28.4%의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필요치 않다는 응답도 25%나 있어 필요성의 인식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윤보라(2013)의 논문에서 오래 지속된 기독교 무용의 경험은 무용 인식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⁸¹⁾ 예배형식이 중요하지만, 꾸준히 예배 무용을 실행할 수록 인식이 높아짐을 증명하고 있다.

제 3 절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관심도 인식 차이

본 연구에서는 실행 시기가 다른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관심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3을 제시하였다.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해 일원 변량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10.359$,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예배 무용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예배 무용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와 중단했다가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같은 점수이고,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계속 중단한 교회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꾸준히 예배 무용을 실행할 수록 관심도의 인식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배 무용 실행 시기에 따라 관심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3은 채택되었다.

항목별로 살펴봤을 때 예배 무용에 관한 관심도의 긍정적인 답변이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50%,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49%,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42.6%, 그리고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23.6% 순으로 나타났다. 관심도에 비해 예배 무용에 참여할 의사 및 후원할 의사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행 시기에 따라 관심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⁸¹⁾ 윤보라.(2013). “기독교 무용 경험이 무용 인식과 무용공연 관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p.80.

연구를 시작할 당시 예배 무용이 있었던 교회이기에 그 가치를 알아 오히려 꾸준히 유지한 교회보다 중단한 교회에서 관심도와 필요도가 더 높게 나오리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 지도자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 예배 무용팀이 부활할 의지가 없기에 교회 성도들 또한 예배 무용에 관심을 두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목회자와 지도자의 방향성이 같고 팀원들이 있을 때 예배 무용팀이 세워질 수 있지만,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무용팀의 이름이 여전히 올라와 있는 것을 인터뷰하기 위해 찾아보면서 알았다는 것은 지도자부터 관심이 매우 저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는 15년의 기간 동안 예산을 받지 않고 사역하였고, 코로나19 기간 중 사비로 연습실을 빌려 연습하는 관심과 열정을 보여줬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그 흐름이 전달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켰을 때 성도들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예배 무용의 인식이 변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 4 절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 만족도 인식 차이

본 연구에서는 실행 시기가 다른 4개 교회 유형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 4를 제시하였다.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해 일원 변량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F=9.595$, $p<.001$ 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에도 예배 무용을 꾸준히 유지한 교회와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의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가 동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와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 순으로 만족도가 나타났다. 따라서 꾸준히 예배 무용을 실행할수록 만족도의 인식이 높아진다는 의미이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배 무용 실행 시기에 따라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설 4는 채택되었다.

작품성에 대한 만족의 긍정적 답변은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70%,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66%,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58%, 그리고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45.8%로, 1등 한 교회와 24.2%의 인식 차이가 났다. 주제 내용에 대한 만족도의 긍정적 답변

은 코로나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67%,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66%,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62%, 그리고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34.6%로, 1등 한 교회와 32.4%로 차이가 크게 났다, 그리고 감동과 은혜가 충만했는지에 대한 질문 또한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가 76%,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가 73.3%,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70%, 그리고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가 47.3%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모든 항목의 결과의 통계는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가장 높게 나왔으나 ‘그렇다’ 이상의 긍정적 답변의 순위가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꾸준히 유지한 교회는 연령이 60대 이상의 고령이 많고 워십팀도 연세가 많은 권사님팀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와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는 젊은 집사님팀으로 영성의 차이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전문적인 동작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은 젊은 집사님팀이 더 유리하기에 이와 같은 결론이 나왔으리라 예측한다. 이처럼 테크닉이 결과에 변수를 주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와의 인식 차이를 비교하면 무엇보다 예배 무용의 실행 여부의 차이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제 5 절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가 필요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도와 관심도는 예배 무용에 대한 필요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5를 제시하였다.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해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예배 무용 필요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63.9%로 나타났으며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F=414.931, p<.001$) 모형이 적합하였다. 분석 결과 예배 무용 인식도($\beta=0.624, p<.001$)는 예배 무용 필요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배 무용 관심도($\beta=0.238, p<.001$)는 예배 무용 필요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배 무용 인식도가 긍정적일수록, 예배 무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예배 무용 필요도가 높아진다는 가설 5는 채택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와 다르게 코로나19 이전 2010년대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으로 응답한 답변이 인식도가 81.6%, 관심도가 61.8%, 그리고 필요도가 86%로 나타났다. 인식도와 필요도에 비해 관심도가 낮은 결과이기는 하지만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적 변수도 있었으리라 예측하며 차후 연구가 진행 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예배형식 중 진행자가 어느 한 순서를 빼먹으면 예배 진행 형식의 중요성을 알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진행자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의아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예도 있으리라 추측한다. 이는 진행자가 빼먹은 순서의 필요성을 알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몸으로 표현하는 예배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찬양을 부르며 두 손을 높이 들라는 권면을 할 때가 있다. 대부분의 성도가 들지만, 들지 않는 성도도 있고 들면서도 어색해하는 성도가 있다. 이는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 즉 예배 무용의 중요성을 인식 못 하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으로 본 연구가설과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일시적인 권면이 아닌 매주 목회자가 손을 올리라고 한다면 그 어색함은 자연스러움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예배 무용 또한 원활한 보급을 통한 필요도를 높여 제 기능을 하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지기를 기대해 본다.

제 6 절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는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6을 제시하였다.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해 예배 무용 인식도, 관심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예배 무용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53.1%로 나타났다으며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F=265.351, p<.001$) 모형이 적합하였다. 분석 결과 예배 무용 인식도($\beta=0.568, p<.001$)는 예배 무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배 무용 관심도($\beta=0.217, p<.001$)는 예배 무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배 무용 인식도가 긍정적일수록, 예배 무용에 대한 관심도

가 높을수록, 예배 무용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가설 6은 채택되었다.

코로나19 기간 꾸준히 유지한 교회는 절기 행사 때 성가대와 함께 협업하여, 찬양과 예배 무용을 대예배 성가대 찬양 시간에 올림으로 예배 무용의 경험이 쌓여 갔다.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는 자발적으로 지원한 교회학교 친구들과 협업하여 온 세대 연합예배 때 올려드렸으며,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는 유년부 친구들과 위십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은사 나눔으로 교회 내 문화센터처럼 장구와 워십반을 개설해 예배 무용을 가르쳤다.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통한 자발적 지원으로 경험을 통한 만족도가 높아진 결과이고, 주기적인 예배 무용팀의 예배를 보며 경험을 통해 만족도가 높아진 결과로 예측한다. 그러므로 예배 무용의 보급과 실행은 예배의 감동과 은혜의 경험을 주므로 예배 무용의 보급이 필요함을 증명한다.

제 7 절 예배 무용 필요도가 예배 무용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예배 무용에 대한 필요도는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7을 제시하였다. 이 가설의 검증을 위해 예배 무용 필요도를 독립변수로 하고 예배 무용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58.5%로 나타났으며 F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F=662.252, $p < .001$) 모형이 적합하였다. 분석 결과 예배 무용 필요도($\beta = 0.765$, $p < .001$)는 예배 무용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예배 무용 필요도가 높을수록 예배 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가설 7은 채택되었다.

선행연구 함성애(2002)의 연구를 통해 필요도는 87%, 만족도는 73%로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와, 예배 무용 필요도가 예배 무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가설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는 필요도의 높은 인식뿐 아니라, 필요도 인식 수준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예측한다. 교회의 예배 무용팀은 고인 물처럼 멈춰있어서는 안 되고 교육 및 발전을 통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제 7 장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라진 예배 무용팀이 많은 상황에서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되, 코로나19 이후 예배 무용 실행 시기가 다른 다양한 양상의 4가지 유형의 교회를 선정하여, 코로나19 동안 실행 시기에 따른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 차이를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는 연구로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보며, 이런 시대적 변화를 거치면서 예배 무용이 더욱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4개 교회의 인식과 필요도, 관심도, 그리고 만족도에 관한 연구 분석을 먼저 진행하였고, 그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항목에서 예배 무용을 꾸준히 유지한 교회가 가장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해제 후 부활한 교회와 코로나19 기간 중 부활한 교회 순으로 인식도가 나타났으며 코로나19 해제 후에도 중단한 교회의 인식이 가장 낮았다. 현재 예배 무용을 실행 중인 교회는 예배 무용 인식에 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가 해제 후 1년여 동안 예배 무용을 드리고 경험하며 예배 무용에 관하여 긍정적인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반면 중단한 교회 인식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예배 무용팀의 존재 여부 및 예배 무용 경험에 따라 인식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목회자의 방침이 다르지만, 꾸준히 예배 무용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상황이 열리고 쓰임을 받게 되며 예배 무용 인식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

둘째, 예배 무용 인식의 차이가 필요도와 관심, 그리고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인식도를 높이는 방법

은 먼저 예배 무용팀이 예배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위하여 영성과 성실한 연습을 통해 만족뿐 아니라 감동까지 줄 수 있는 예배 무용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식과 관심이 높아져 교회에서 예배를 돕는 역할로 세워지고 예배 무용 관람을 통해 필요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인식을 비교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인식변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또한 교회별로 코로나19 기간과 해제 후 꾸준히 교회 안에서 예배 무용을 실행했기 때문에 인식이 나빠지지 않고 미비하게나마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예배 무용을 실행하는 교회가 아닌 중단한 교회와 인식을 비교하면 중단한 교회의 인식이 현저하게 낮았다. 코로나19 이후 중단한 교회들이 늘었다고 알고 있는데 예배 무용의 인식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예배 무용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넷째, 예배 무용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이나 이후 모두 예배 무용의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 개선점은 성경과 기독교 내용을 예술성 있게 표현하여 전달하는 것이 59.3%로 가장 높았고 테크닉, 안무에 관한 연구로 전문성 확립이 20% 순으로 나타났다.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문적인 표현을 통해 전할 수만 있다면 성가대처럼 예배 안에 고정적으로 세워지는 역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대신 할 수 있는 감동까지 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위와 같은 결과를 살펴봤을 때 현재 예배 무용을 실행하고 있는 3개 교회는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도 및 필요도, 관심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와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예배 무용을 하는 3개 교회와 중단한 교회의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도는 모든 항목에서 완전히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예배 무용의 실행 여부가 인식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예배 무용을 하면 할수록 인식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연구로 증명하였다. 앞으로 예배 무용을 더 활성화하고 예배 무용의 인식을 높이려면 더 많이 예배 무용이 이뤄지고 보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예배 무용의 인식도를 높이는 방법은 첫째, 예배 무용의 보급이며 둘째, 전문적인 예술성 있는 안무와 셋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예배 무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만족 및 감동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예배 무용의 인식을 높이고 보급하기 위하여 예술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예배 무용팀이 교회 안에 세워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배 무용의 전문성과 신학적 정립 및 당위성을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무용 실기 교육과 함께 신학적인 이론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 무용에 관심을 가지고 예배 무용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와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더 나아가 교회와 함께 교단에서 총체적으로 예배 무용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배 무용의 체계가 교단에서부터 시작하여 예배 무용 보급 및 활성화를 시킨다면 교회 자체에서도 팀의 구성과 섬김의 자리가 세워질 것이다. 예배 무용의 보급이 활성화되면 인식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의 신앙 성숙 및 영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이후 예배 무용 보급으로 인한 인식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예배 무용 보급 및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론적 실제적인 연구와 신학적인 이론과 전문적인 실기를 겸비한 구체적인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예배무용가를 양성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세광. (2001). 『현대 교회에서 예배 정의에 대한 신학적 고찰』. 서울: 장신논단.
- 김소영. (1982). 『예배와 생활』.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 김영미. (2018). 『한국교회 예배 무용의 유형 및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김현정. (2022). 『기독교 무용의 실태와 발전 방안: 기독교 무용 교육 연구를 바탕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Macarthur, John. (1986). 『참된 예배』. (한화룡, 역). 서울: 두란노서원.
- 박금자. (1988). 『무용론』. 서울: 도서출판 금광.
- 박연훈. (2002). 『몸 찬양 비디오 통신대학』. 서울: 프레이즈.
- 박영애. (2005). 『기독교 무용사』. 서울: 한성대학교출판부.
- 박영애. (2010). 춤과 교회문화. 대한무용학회(편): 『춤과 문화』. 서울: 도서출판 대한미디어.
- 박영애. (2010). 성경에 나타난 춤의 의미 및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무용 기록학회』, 18(-), 23-39.
- 박은영. (2005). 『예배 무용의 특성 연구(성서와 현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Berry, P. Madeline.(1994). 『몸으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계인, 역).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
- 배에스더. (2013). 『기독교와 예배 무용을 통한 선교방안의 모색』.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변현정. (1995). 『기독교 무용 예배 활성화를 위한 신도들의 인식도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유순. (1990). 『기독교의 예배 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

자대학교 대학원.

- 양서정, 서차영, 전미숙, 서영. (2009). 『무용의 이해』. 서울: 교학사.
- 유학자. (1997). 무용이 한국기독교 선교에 미치는 영향. 『한국 무용 교육학회』, 7(-), 129.
- 윤보라. (2013). 『기독교 무용 경험이 무용 인식과 무용공연 관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윤초롱. (2002). 『한국기독교 무용의 현황과 발전 방안』.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 이승은. (2011). 『이주 노동자 문화선교를 위한 기독교 무용의 인식과 활용 가능성』.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 이신영. (2001). 『한국선교 무용의 실태』.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정인. (2009). 『기독교 무용의 인식변화 분석』.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이지연. (2006). 『기독교 예배 무용의 가치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한나. (2010). 『예배 무용에 대한 신학생들의 인식도』.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장영대. (2008). 『예배에 있어서 교회음악의 역할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 정인교. (1997). 『예배학 원론』. 서울: 솔로몬 말씀사.
- 조혜경. (2008). 『현 기독교 무용의 실체와 미래 방안 모색』.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 주은혜. (2008). 『춤을 통해 본 기독교 문화와 교육적 과제』.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 최신정. (2006). 『하나님을 향해 춤을』. 서울: 요단 출판사.
- 최지연. (2012). 『기독교 무용의 가치 인식변화에 따른 공연 활성화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 최지연. (2018). 『교회 사역에서의 기독교 무용 활성화 방안연구』. 박사학

위논문.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Franklin M Zeigler. (1979). 『예배학 원론』. (정진항, 역). 서울: 요단출판사.

한재선. (2008). 『성서에 나타난 기독교 무용의 유형과 현황 연구』. 박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함성애. (2005). 『무용의 기독교에서의 기능과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황성철. (2011).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2. 국외문헌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6).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3. 인터넷 웹 사이트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8165#share>〉

뉴스제이.

〈<http://www.newsjesus.net/news/articleView.html?idxno=2933>〉

메디칼업저버.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49>〉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8%88%EB%B0%B0>〉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정보국원.

〈<https://knaps.or.kr/273>〉

한국기독교공보.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812863361>〉

【부 록】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코로나19 이후 예배 무용에 대한 인식 비교연구’를 위한 설문 조사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신 내용은 학술적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내용은 옳고 그른 정답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껏 답해 주십시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문 응답 중에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번호나 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본 설문에 귀중한 시간을 나눠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10월

한성대학교 대학원

기독교무용 전공

석사과정 박 언 주

I.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인 배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2. 귀하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대 이상
3. 교회에 다닌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① 모태신앙 ②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④ 20년 이상 ⑤ 30년 이상
4. 세례를 받았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5.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시다면 무엇입니까?
① 목회자 ② 직분자 ③ 일반성도
6. 교단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① 합동 ② 통합 ③ 감리 ④ 고신 ⑤ 성결
7. 참석하는 교회의 규모는 몇 명입니까?
① 1000명 미만 ② 1000명 이상 ③ 2000명 이상
④ 3000명 이상 ⑤ 4000명 이상
8. 매주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9. 최근 예배는 어떤 방법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① 대면 예배 ② 영상 예배

II. 다음은 예배 무용에 관한 인식도를 측정하는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예배 무용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2번 문항으로) ② 없다(3번 문항으로)

2. 1년에 예배 무용을 접한 횟수는 몇 번입니까?

- ① 2번 이하 ② 4번 이하 ③ 6번 이하 ④ 7번 이상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3. 예배 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예배 무용이 신학적 근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예배 무용이 성가대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예배 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예배 무용이 설교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예배 무용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예배 시간에 예배 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예배 무용이 교회에 예배를 돕는 역할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예배 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초신자, 전도 대상자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배 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IV. 다음은 예배 무용 관심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예배 무용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예배 무용 활성화를 위해 후원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예배 무용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예배 무용에 대한 교회의 후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예배 무용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용	전 혀 그 렇 지 않 다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예배 무용의 작품성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예배 무용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예배 무용의 주제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예배 무용에서 사용된 의상이나 분장이 마음에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예배 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예배 무용을 통해 감동과 은혜가 충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7. 예배 무용을 통해 주님에 대한 은혜를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8. 예배 무용이 말씀이나 설교를 대신할 만큼 의미가 전달되어 마음에 감동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VI. 다음은 예배 무용 개선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해당하는 응답을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 예배 무용이 어떤 내용이기를 바라십니까?
① 성경 내용 ② 간증 ③ 찬양 내용 ④ 모르겠다
- 예배 무용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① 그렇다(4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3번 문항으로)
- 2번 문항에서 ‘② 아니다’라고 답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관식)
- 예배 무용 활동의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무용 전공인 ② 비전공인 ③ 전공에 상관없이
- 전문 예배무용수들을 배출하기 위해 정규 대학원처럼 전문 고등 교육기관을 통해 무용과 신학을 병행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 ② 필요치 않다
- 예배 무용의 발전을 위해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테크닉, 안무에 관한 연구로 전문성 확립
② 의상, 분장, 소품 등 공연에 필요한 부분의 보완

- ③ 재즈, 힙합 등 다양한 장르 도입에 있어 나이별 차이에 대한 고려
 - ④ 더 깊은 기독교 가치관과 성경을 주제로 한 내용
7. 예배 무용의 발전·성장에 가장 큰 장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국 교회가 선교와 예배에 있어서 예배 무용의 중요성 인식의 부재
 - ② 무용의 전문 문화 사역에 대한 독자적 필요성 인식의 부재
 - ③ 성경을 주제로 다룬 수준 높은 작품 수의 미흡
 - ④ 성도들의 무용에 대한 부담감
 - ⑤ 전문 무용인들의 부족
8. 예배 무용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동작이 쉽고 단순하여 모든 성도가 참여 가능
 - ② 경건하고 진지하여 예배로서 역할 가능
 - ③ 청소년들의 문화에 맞아 교회 생활 적응에 도움
 - ④ 성경과 기독교 내용을 예술성 있게 표현하여 전달

감사합니다.

ABSTRACT

Comparative Study of Worship Dance Perception After the COVID-19 Period

Park, Eon-ju

Major in Christian Dance

Dept. of Da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four types of churches that have exhibited various dance program implementation after the onset of COVID-19, and through a survey on the perception of worship dance, compare and analyze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worship dance based on the timing of implementation post-COVID-19. This study holds significant importance as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pre and post-COVID-19 periods, and it is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the exploration of ways in which worship dance becomes more active amidst these temporal changes.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worship dance in each church through their leaders and conducted quantitative research focused on surveys targeting the congregation. Additionally, we referred to literature and internet sources to explore the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trends in the perception of worship dance. We selected churche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that had worship dance teams before COVID-19. One of these churches consistently maintained worship dance during the COVID-19 period, one revived worship dance during COVID-19, one revived worship dance after the lifting of COVID-19 restrictions, and one discontinued worship dance even after the lifting of COVID-19 restrictions. To verify changes in perception based on the timing of implementation, we formulated hypotheses and conducted an analysis by examining the differences and correlations in perception regarding awareness, necessity, interest, and satisfaction with worship dance.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urvey conducted over a period of seven days targeting congregants aged 13 and above. A total of 472 responses were gathered and statistically analyzed using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WIN 25.0 program. Based on various analyses, including Reliability Analysis and Frequency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hypothesis verific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was observed that churches that consistently maintained worship dance provided the most positive responses across all items. On the other hand, churches that discontinued worship dance exhibited relatively low levels of perception. The churches currently practicing worship dance provided positive responses regarding their perception. This is believed to stem from their experience of engaging in worship dance for approximately one year after the lifting of COVID-19 restrictions, leading to a positive shift in their perception. Such results indicate that the presence of a worship dance team and their experience have an impact on the perception of worship dance.

Secondly, through the research findings, it was evident that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worship dance influenced the perceived necessity, interest, and satisfaction with worship dance. The first step in elevating awareness is for the worship dance team to be integrated into the worship service. However, to achieve this, the worship dance team should strive to not only bring satisfaction but also evoke a sense of awe through spirituality and diligent practice. It is hoped that as awareness and interest increase, the worship dance team will take on a supportive role in the church, and through attendance at worship dance performances, positive influences will be connected to elevated necessity and satisfaction levels.

Thirdly, there were slight changes in perception after the onset of COVID-19. This is believed to be a result of th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worship dance within the churches during and after the COVID-19 period, preventing a decline in perception and leading to at least some positive changes. However, when comparing the perception of discontinued churches with those currently practicing worship dance, it was evident that the perception in discontinued churches was significantly lower. Additionally,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churches discontinuing worship dance after COVID-19. However, to elevate the perception of worship dance, it is obviously necessary to promote the widespread adoption of worship dance.

Fourthly, when examining the shortcomings of worship dance, both before and after COVID-19, the most common response was a lack of awareness regarding its importance. As for areas for improvement, the highest response, at 59.3%, was related to expressing biblical and Christian content in an artistic manner, while research on technique and choreography for establishing professionalism followed at 20%. If dance

teams can convey the working of the Triune God –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 through professional expressions aligned with Christian values, the worship dance team could play a more integral and fixed role within worship, not only serving like a choir but also delivering a moving experience that provides a substitute for the Word.

When examining the results mentioned above, it appears that the three churches currently practicing worship dance show high levels of awareness, necessity, interest, and satisfaction with worship dance. This suggest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perception of worship dance in these churches. However, the perception of worship dance in the discontinued church showed a complete difference across all aspects, indicating a notable contrast in all categories. Therefore, through this study, it became evident that the implementation of worship dance significantly influences perception, and the research demonstrated that engaging in worship dance can progressively elevate awareness. To further activate worship dance and enhance awareness of it in the future, it will be essential to increase the frequency and promotion of worship dance. Methods to elevate the awareness of worship dance include widespread adoption, professional and artistic choreography, and conveying messages aligned with biblical values. Subsequent research could focus on methodological and practical studies aimed at promoting and activating worship dance, ensuring an increase in awareness through widespread adoption. Additionally, further studies that combine theological theory with professional practical skills, aiming to cultivate specific professional worship dancers, are anticipated.

【Key words】 Worship, Worship Dance, Types of Worship Dance, Perception of Worship Dance